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8
vol.315 03



커버스토리

정경화 초청 리사이틀

오페라 연출가 이완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 '피가로의 결혼' 프로젝트

유럽 박물관 기행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위대한 정신이 있는 곳, 우피치 미술관

LUDWIG VAN BEETHOVEN

거장, 거장을 만나다

The 5 Piano Concertos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전곡 연주회



지휘 이동신



부산시립교향악단

3/14(수)

3/15(목)



No.1
주희성



No.2
파스칼 드보이옹



No.3
노경원



No.4
김영호



No.5
이미주

2018. 3. 14(수) & 15(목)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부산문화회관 | 문의 및 예매 | 051)607-6000 | www.bscc.or.kr
|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지휘 방성호

노래 장사익

국악 송소희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금정구 개청 30주년 기념

신춘콘서트

Spring Concert

2018. 3. 8(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할 인: 50% 국가유공자, 장애우(동반1인 포함), 의상자, 의사자유족 / 30% 금정구민(본인 적용) / 20% 20인 이상 단체, 정기회원(본인 적용)

입장연령: 만 7세 이상 예 매:  금정문화회관 인터파크 주 최:  금정문화회관문 의: 051) 519-5661,3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8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8회 정기연주회

MENDELSSOHN
MOZART
BEETHOVEN

Program

멘델스존 | 봄 노래
F. Mendelssohn | Frühlingslied, Op.62/6

모차르트 | 클라리넷 협주곡
W. A. Mozart |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 622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L. v. Beethoven |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지휘 최수열



클라리넷 이환석

봄이 오는 소리

2018.3.9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2회 운행)

바리톤 이응광 리사이틀

with 피아니스트 한상일

서정적인 보이스와 섬세한 테크닉,
다채로운 연기로 유럽을 사로잡은 바리톤 이응광과
피아니스트 한상일이 펼치는 슈만의 가곡
‘시인의 사랑’을 비롯한 풀랑, 레하르의 곡으로
성악연주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R. Schumann

Dichterliebe, Op.48 〈시인의 사랑〉

F. Poulenc

Chansons Gaillardes FP 42 〈명랑한 노래〉

K. Millöcker

Gasparone 중 Dunkelrote Rosen bring ich schöne Frau
〈나는 흑장미를 바칩니다〉

F. Lehar

“Giuditta” 中 아리아 Freunde, das Leben ist lebenswert
〈친구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네〉

2018. 4. 7 SAT 5:00 pm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주최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문의 | 051.740.5833

www.busanarts.com



www.interpark.com

티켓 | 1544-1555

티켓 | 전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10%, 학생(초, 중, 고, 대학생)20% (학생증 미지참시 차액지불)

SPECIAL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정경화 초청 리사이틀



CULTURE +
유럽 박물관 기행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위대한 정신이 있는 곳,
우피치 미술관



VIEW +
리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강원도립극단 교류공연



NEWS +
부산문화회관 소식

contents

SPECIAL +

- 08 커버스토리
정경화 초청 리사이틀

CULTURE +

- 10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3월 공연 캘린더
- 14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1+1,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 '피가로의 결혼' 프로젝트
- 16 유럽 박물관 기행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위대한 정신이 있는 곳, 우피치 미술관
- 20 테마가 있는 여행
아라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역사의 고장 함안

VIEW +

- 27 프리뷰
- 39 전시화제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나는 덕후다'
- 40 리뷰
- 42 프로그램 가이드

NEWS +

- 53 새로 나온 책
-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8년 3월호 통권 315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8년 2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정경화 초청 리사이틀

8



지난해 데뷔 50주년을 맞아 뉴욕 카네기홀과 런던 바비칸 센터에서 기념 독주회를 가졌던 정경화는 2017년 영국의 유력 음악지 그라모폰이 선정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정경화는 지난 50년 동안 강렬한 음악적 감수성과 예술적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로 전 세계 음악애호가들의 높은 찬사를 받아왔다.

2018년 4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PROGRAM

포레/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가장조 작품 13
 브람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라단조 작품 108
 프랑크/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1967년 레벤테리트 콩쿠르 우승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으며 세계 음악계에 등장, 같은 해 미국 카네기홀에서 데뷔 연주회를 가진 정경화는 1970년 런던 데뷔 무대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순식간에 음악계 스타로 떠올라 이후 앙드레 프레빈, 게오르그 솔티, 클라우스 텐슈테트, 리카르도 무티, 버나드 하이팅크, 다니엘 바렌보임, 클라우디오 아바도 등 최고의 지휘자들이 이끄는 정상급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며 세계적인 연주자로 거듭났다.

1989년 슈트라우스/레스피기 소나타 녹음으로, 1994년에는 바르톡 협주곡 제2번 녹음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음반상 중 하나인 그라모폰 상을 수상한 정경화는 데카, RCA, 도이치 그라모폰, EMI 등 유명 메이저 음반사에서 총 32장의 앨범을 발표하며 전설적인 명반들을 남긴 바 있다.

정경화는 1992년 지휘자 게오르그 솔티 팔순 기념 연주회, 1995년 지휘자 피에르 불레즈의 칠순 기념 콘서트에 독주자로 초청받았으며 1997년에는 국제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시리즈를 한국과 영국 런던 바비칸센터에서 가지기도 했다.

지난 2005년 손가락 부상 이후 5년간 연주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던 정경화는 이후 재기에 성공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2013년 말에는 일본과 중국, 타이완에서 순회연주회를 가졌으며, 2014년 말에는 런던 데뷔 무대였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대대적인 컴백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도 재개했다. 2016년에는 워너 클래식(구 EMI)과 계약을 맺고 첫 녹음으로 평생의 숙원이던 바흐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을 녹음했으며, 데뷔 50주년이던 지난해는 바흐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을 거쳐 뉴욕 카네기홀, 런던 바비칸센터에서 순회연주회를 갖기도 했다. 아시아위크가 뽑은 ‘위대한 아시아인 20인’,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선정한 ‘최근 20년간 가장 위대한 기악 연주자’에 오르기도 한 정경화는 언니인 첼리스트 정명화와 함께 올해까지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 활동했으며 2007년부터 모교인 줄리어드 음악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평창국제음악제에서 처음 만나 지난 7년간 끊임없이 호흡을 맞추며 최고 경지의 듀오 음악을 선보여온 정경화의 음악적 동지 케빈 케너와 함께한다. 정경화가 ‘새로운 음악인생을 열어준 완벽한 음악적 동반자’라 극

찬했을 정도로 정경화의 듀오 피아니스트로 맹활약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는 지난 1990년 클래식콩쿠르의 양대 산맥인 쇼팽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1등 없는 2등상과 폴로네즈상을, 같은 해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하며 쇼팽과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동시에 입상한 유일한 미국인 피아니스트로 세계 음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영국과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전역,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지를 누비며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쇼팽 콩쿠르, 부조니 콩쿠르 등 주요 대회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케빈 케너는 지난 11년간 영국 왕립음악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프로스트 음악원 교수 및 프로스트 쇼팽 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포레의 두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 첫 번째 작품으로, 우아함과 활력이 넘치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가장조 작품 13’을 시작으로 브람스가 10여 년에 걸쳐 쓴 작품으로, 그의 삶과 음악, 사랑에 대한 진한 감성이 녹아있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라단조 작품 108’, 그리고 프랑크의 첫 번째 바이올린 소나타이자 깊은 고독과 명상적 분위기가 그의 특유의 감수성을 나타내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를 들려준다.



피아노 케빈 케너

03

2018 MAR

부산문화회관
공연일정

10

SUN	MON	TUE
전사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1월 1일(월)~4월 8일(일)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070-7542-8531)	입장료 : 성인(만 19세~64세) 1만 3천원 청소년(중·고교생) 1만 1천원 어린이(48개월~초등학생) 9천원 45개월 미만 무료(증빙서류 지참)	
4	5	6
11	12	13
		대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그의 슈베르트, 슈베르트 서거 190년 기념’ 19:30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18	19	20
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_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캠 신정은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_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5	26	27
중 2018 원 스트링 기획 시리즈 I ‘원 스트링과 함께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00 원스트링 챔버(010-4550-9961) 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_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_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캠 챔버홀 **야**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WED	THU	FRI	SAT
	1	2	3
	참 제9회 꿈꾸는 사람들의 음악회 19:00 무료 최원갑(010-2576-1097)	대 부산시립합창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민인기 지휘자 초청연주회 ‘꽃, 그리고 사랑’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15~6)	
7	8	9	10
	참 제4회 대한민국 신인 음악제 ‘황준영 피아노 독주회’ 19:30 전석 1만원 예음클래식(02-6203-7203)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8회 정기연주회 ‘봄이 오는 소리’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대 UKO 오케스트라 제42회 사랑나눔음악회 19:30 전석 2만원 UKO 오케스트라(010-8011-9313)
14	15	16	17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전곡 연주회 ‘거장, 거장을 만나다’ 19:30 5만원·3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전곡 연주회 ‘거장, 거장을 만나다’ 19:30 5만원·3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_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중 부산노회여전도회 연합합창단 정기연주회 ‘봄의 찬미’ 19:00 초대/부산노회여전도회 연합합창단 (010-3880-8659) 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_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1	22	23	24
	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5회 정기 연주회_신춘음악회 ‘風流, 봄을 노래하다’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 참 피아니스트 김희재 독주회 19:30 전석 2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제2회 키즈 웰컴 콘서트’ 11:00 전석 1만원(임산부, 영유아 동반 시 1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VI ‘운명’ 17:00 4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중 AK21국제안무가육성공연 본선 심사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868-7881)
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_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_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_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_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8	29	30	31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3 ‘오페라 이야기 I’ 11:00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대 아카펠라 제니스 초청 콘서트 19:30 3만원·2만원·1만원/부산문화(1600-1803)	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7회 정기연주회 ‘Symphony No. 5-Ⅲ’ 19:30 전석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7)	중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익스트림 댄스 코미디 ‘브레이크 아웃’ 19:30 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_1,고(孤)’ 17: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중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익스트림 댄스 코미디 ‘브레이크 아웃’ 14:00, 18:00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참 장영희 귀국 오보에 리사이틀 17:00 전석 2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 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_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_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_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_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03

2018 MAR

부산시민회관
공연일정

SUN	MON	TUE
전시실 사람도 풍경이다 2월 26일(월)~3월 3일(토) 1층 전시실 문의 : 류상오 010-9002-8408 부산시민회관 기획전 '나는 덕후다展' 3월 2일(금)~3월 18일(일) 2층 전시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32	맘따미 회원전 3월 6일(화)~3월 11일(일) 1층 전시실 문의 : 박정희 010-9900-5699 수목회 정기전 3월 12일(월)~3월 17일(토) 1층 전시실 문의 : 김병연 010-7900-2788	민화는 민화다 3월 18일(일)~3월 24일(토) 1층 전시실 문의 : 전정혜 010-4703-2205 한국 전통도예가 도천 서광윤 도예전 3월 26일(월)~4월 2일(월) 1층 전시실 문의 : 백문영 010-4703-2205
4	5	6
11	12	13
대 어린이뮤지컬 '타닝메카드R-최후의 레이서' 11:00, 14:00 6만원 · 5만 5천원 · 4만원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소 사랑의 콘서트 15:00 전석 1만원 한국연예인클럽 이벤트사업부(852-2211)
18	19	20
대 뮤지컬 '광화문 연가' 14:00 14만원 · 12만원 · 9만원 · 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소 부산시립극단 제61회 정기공연 '2018 MACBETH'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5)	소 부산시립극단 제61회 정기공연 '2018 MACBETH'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5)
25	26	27
대 어린이뮤지컬 '신비아파트-인형뽑기 기계의 비밀' 11:00, 14:00, 16:30 6만원 · 5만 5천원 · 4만원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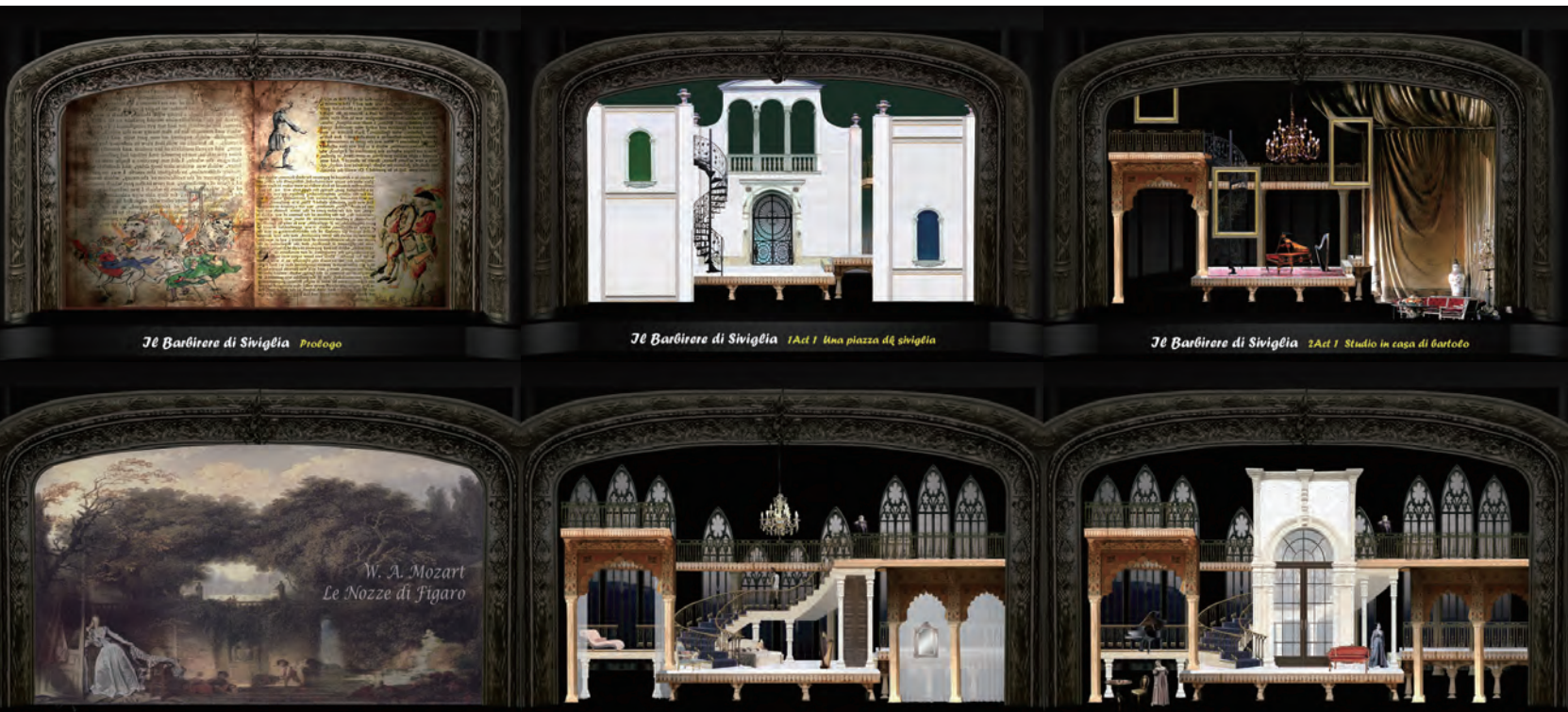
WED	THU	FRI	SAT
	1 대 제99주년 삼일절 기념식 10:00 부산광역시청(888-1854) 소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10:00 무료 (사)한국교육선진화재단(201-0221)	2	3 대 클라비어 앙상블과 함께하는 어린이악대 편편 뮤직페스티벌 17:00 어린이악대 부산센터(010-8527-4541) 소 김규남 벽해무용단 제3회 공연 18:00 벽해무용단(291-1010)
7	8 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8 우리 춤 산책' 19:30 전석 5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21~2)	9	10 대 어린이뮤지컬 '타닝메카드R-최후의 레이서' 11:00, 14:00, 16:00 6만원·5만 5천원·4만원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소 수리수리 아저씨와 함께하는 매직쇼 11:00, 14:00, 16:00 전석 3만원 (주)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14	15	16 대 뮤지컬 '광화문 연가' 20:00 14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17 대 뮤지컬 '광화문 연가' 15:00, 19:30 14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21	22 대 CBS콘서트 '어쿠스틱 라이프' 19:30 초대 부산CBS(636-0050) 소 부산시립극단 제61회 정기공연 '2018 MACBETH'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5)	23 소 부산시립극단 제61회 정기공연 '2018 MACBETH'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5)	24 대 어린이뮤지컬 '신비아파트-인형뽑기 기계의 비밀' 11:00, 14:00, 16:30 6만원·5만 5천원·4만원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소 부산시립극단 제61회 정기공연 '2018 MACBETH' 17:00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607-3125)
28	29 소 부산시민회관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상영 '미녀와 야수' 14:00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4)	30	31 대 벚꽃스캔들 18:00 9만 9천원·8만 8천원·7만 7천원 M&M 엔터테인먼트(053-625-9222) 소 가족뮤지컬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 11:00, 14:00, 16:00 전석 2만 5천원 온누리(1661-6702)

1 + 1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 ‘피가로의 결혼’ 프로젝트

“네? 아니 뭐라고요?
같은 무대로 다른 오페라를 만들어 보라고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황당했지만, 그리고 대답을 그렇게 했지만 씹는 도전 정신과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미 오페라 하우스에서 소프라노 캐슬린 김을 주인공을 내세워 나의 연출로 제작한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한 프로덕션에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적은 무대 예산과 슬라이딩, 승강무대와 옆 포켓 공간이 없는 무대의 상황을 감안해 같은 골격 안에서 무대에 올리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며 연락이 왔다. 다른 작곡가의 완전히 다른 작품을 하나이면서 둘인 오페라를 만든다며... 둘이지만 하나같은 느낌도 들게 해달라며... 음, 그래서 어찌라



고? 그러더니 내가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연출했으니 다른 사람이 ‘피가로의 결혼’ 연출을 맡아 같은 듯 다르게, 새롭게 제작해 볼 수 있을거라며 내게 좋은 연출가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



나는 처음에 “저요! 저요!, 제가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연출료를 받지 않고 하겠습니다!”라며 출사표를 던졌지만 그들이 원하는, 다른 개념의 작품이 아닌 이전의 작품과 똑같은 색채가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절당했다. 뭐 퇴짜 맞은 셈인거다, 하하하. 그래서 나는 참신하고 좋은 연출가 여럿을 소개하고 포트폴리오도 보내고 예술감독은 서울에서 인터뷰도 하며 물색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미 세운 무대 자체를 다른 연출가가 다른 작품으로 재창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며-연출가들도 난감해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이 두 작품을 연출하는 게(‘바로 나!’) 차라리 낫겠다고-인지한 프로덕션에서 드디어 나에게 두 작품을 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대박사건이었다. 이런 기회가 오다니! 나는 흥분하지 않고 나의 손을 거쳤던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다시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빌리아의 이발사’ 무대 디자이너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대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무대 디자이너를 투입시키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의상 디자이너에게도 양해를 구해 다른 의상 디자이너와 새롭게 만들기로 결단을 내렸다.

캐스트는 물론 합창단까지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피가로의 결혼’은 완전히 달랐다. 오전에는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연습하고, 오후에는 ‘피가로의 결혼’을 연습하는 아주 유니크한 시간을 가졌다. ‘나는 멀티가 가능하니까’하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의 자신감을 주입시키며, 매일매일 다른 작품을 연구하며 작업을 하다 보니 계속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로 인해 시너지 효과가 나기 시작했다.

캐스트들은 이런 작업에서 상대편(?) 다른 작품의 연출도 궁금해하고 또, 성악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면서 결국은 화목한 경쟁관계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나는 중간에서 “이의주 선생님은 피가로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의주 선생님은 세빌리아에 더 애착이 있으신거 같아요, 섭섭해요” 등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며 자신들의 작품에 더 애정을 쏟아 달라는 ‘미묘한 질투에 의한 미소성 협박’을 받곤 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피가로의 결혼’을 한꺼번에 연출하는 이런 경험을 주신 신에게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나는 과연 연출료를 각각 다 받았을까? 그렇다! 처음에 나의 제안을 거절했던 그들은 새로운 제안을 했던 나에게 연출료를 줄 수 밖에 없었다. 예산이 잡혀 있었고, 나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었기에 당당하게 많이 받았다, 하하하! 그리고 개런티보다 더 중요한 공연은 성공했을까? 그것은 당시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피가로의 결혼’ 무대 디자인과 의상 디자인을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믿는다.

의상디자인 세빌리아의 이발사(위)
피가로의 결혼(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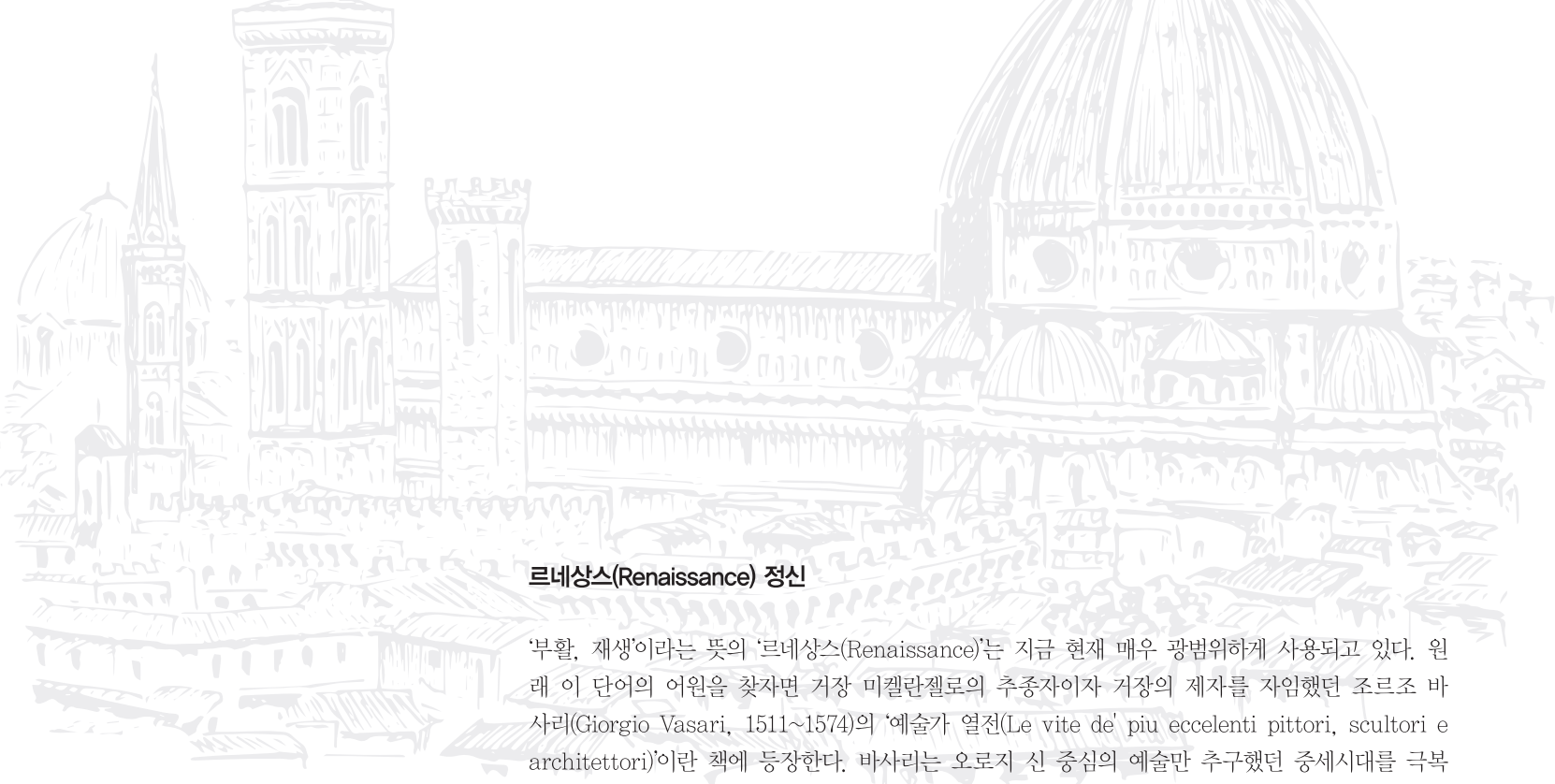
유럽 박물관 기행

글·사진 김성민 (주)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인문학강사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위대한 정신이 있는 곳

우피치 미술관

Galleria degli Uffizi



르네상스(Renaissance) 정신

‘부활, 재생’이라는 뜻의 ‘르네상스(Renaissance)’는 지금 현재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을 찾자면 거장 미켈란젤로의 추종자이자 거장의 제자를 자임했던 조르조 바사리(Giorgio Vasari, 1511~1574)의 ‘예술가 열전(Le vite de' piu eccellenti pittori, scultori e architettori)’이란 책에 등장한다. 바사리는 오로지 신 중심의 예술만 추구했던 중세시대를 극복하고 중세시대 이전 인간 중심의 고대 로마와 그리스로 돌아가려는 문화운동을, 일명 ‘미술의 재생(Rinascimento)’이라고 표현했는데 이후 300년이 지나서 프랑스의 위대한 역사학자 미슐레(Jules Michelet, 1798~1874)의 ‘프랑스 역사’라는 책에서 그 재생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인 ‘르네상스(Renaissance)’로 표기되었고 이런 정의는 5년 후인 1860년, 스위스의 미술사가가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 1818~1897)에 의해 확산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다.

사실 미슐레의 책을 읽어보면 그는 르네상스 정신을 문화, 예술의 작은 범주 속에 국한시키지 않고 새로운 세계와 인간성을 되찾는 넓은 의미의 시대정신을 통틀어 르네상스라고 말했다. 넓은 의미의 르네상스 정신은 신 중심의 중세를 극복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은 1400년대 이탈리아와 플랑드르 지역(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북부 프랑스 지역)에서는 예술로 나타났고 이슬람 세력을 물리쳤던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신항로 개척으로 나타났으며 독일 지역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종교개혁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도 보다 세분화하면 크게 아펜니노 산맥(우리나라 태백산맥과 비슷하게 이탈리아 반도의 남북으로 뻗어있는 산맥)을 기점으로 북쪽의 베네치아와 남쪽의 피렌체 그리고 교황청(로마)으로 나누어진다.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이 되었던 피렌체를 약 300년간 다스렸던 메디치 가문의 컬렉션이 있는 우피치 미술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메디치 가문은 섬유업으로 시작해 이후 금융업으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었으며 1434년부터 약 300년 동안 피렌체를 다스렸던 가문이다. 오늘날 우피치 미술관은 원래 코지모 1세 메디치(Cosimo I de medici, 1519~1574)의 명령으로 피렌체의 사법관들이 사용하는 건물이었고 우피치(Uffizi)에서 사무실이라는 오피스(Office)가 나왔다고 한다. 이후 이 건물의 가장 꼭대기 층에 메디치 가문의 작품들을 전시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피치 미술관의 전신이 되었다. 당시 메디치 가문은 막대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을 했다. 동로마제국의 책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파견했고 이후 이 책들로 도서관을 만들고 플라톤 아카데미를 열었다. 또한 산마르코 광장의 정원에 고대 미술품을 수집하고 학교를 세워 자신이 다스리던 피렌체를 문화강국으로 탈바꿈시켰다. 특별히 메디치 가문은 신플라톤주의를 신봉했는데 신플라톤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인 플라톤의 사상과 중세 기독교 문명이 합쳐진 철학이다.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의 아리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에 등장하는 베키오 다리. 다리 위쪽은 메디치 가문의 비밀통로로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플라톤은 원래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영혼의 상태로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으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면서 완벽했던 순간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살면서 그 이데아의 세계(진리, 아름다움)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누구나 가지게 되는데 이런 마음(열정)을 에로스(사랑)라고 주장했다. 이후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기원 후 3세기가 되면서 신플라톤주의로 발전하게 되는데 신플라톤주의는 이데아의 세계로 가기 위한 방법이 보다 구체화된다. 특히 플로티누스(Plotinus, AD 204~270)는 명상, 기도, 철학을 통해 이데아의 세계로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데아의 세상은 '환한 빛의 세계'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신플라톤주의는 이후 철학자 오리겐(Origen, AD 185~254)과 '참회록'의 저자인 성 어거스틴(AD 354~430)에 의해 기독교의 교리와 합쳐지게 된다. 즉 플라톤이 주장했던 완벽한 세계인 이데아는 빛의 세계인 기독교인들의 천국이며 이데아(천국)로 가기 위한 열정(에로스)은 인류를 위해 죽은 예수의 사랑(헌신적인 아가페)으로 발전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신플라톤주의는 그리스의 철학과 중세의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진 하나의 정신인데 바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1,000년이 지나 이 사상을 계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메디치 가문의 신플라톤주의를 그림으로 옮긴 작품이 우피치 미술관의 대표작인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5~1510)의 '비너스의 탄생(1485)'이라는 작품이다.

전체 구도는 당시 피렌체에서 유행하는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다. 가장 왼쪽에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그의 부인 클로리스와 함께 등장하며 입으로 바람을 불고 있고 그 바람을 타고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주인공 비너스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가장 오른쪽에는 시간의 요정 호라이가 키프로스 섬에서 꽃이 그려진 옷을 들고 비너스를 맞이하고 있다. 이 작품을 눈에 보이는 단순한 신화 속의 장면으로만 바라본다면 메디치 가문의 상징이 될 수 없지만 기독교적인 요소가 함께 숨어있는 신플라톤주의로 해석하면 그림은 무척 재밌어진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너스가 무엇인가?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이데아로 가기 위한 정신(에로스)이자 기독교인들이 천국으로 가기 위한 헌신적인 사랑(아가페)의 발현이다. 또한 비너스가 타고 있는 조개는 신화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9세기경 야고보 성인(스페인에서는 산티아고라 불린다)의 무덤을 발견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순례자들의 상징이



우피치 미술관에 전시된 보티첼리의 또다른 작품 '봄'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위)
우피치 미술관에서 해설 중인 필자(아래)

되었다. 마지막으로 물이라는 의미는 플라톤이 주장했던 완벽한 이데아에서 현실로 올 때 건넌던 망각의 강이자 기독교인들에게는 세례를 받을 때 사용되는 정화의 의미가 강하다. 고대 철학자들이 바라던 이데아와 기독교인들이 바라던 천국으로 가는 통로와 같았던 사랑(비너스)이 지금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고 있다. 그런데 저 키프로스 섬과 비너스와 호라이의 옷에는 각종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있다. 피렌체(Firenze)라는 도시의 여원이 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꽃이 만발한 자국을 피렌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척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가 합쳐진 신플라톤주의. 그것을 계승하고 피렌체를 다스렸던 메디치 가문의 정신이 가장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된 이 작품이야말로 우피치 미술관의 모든 작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지식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좋은 것을 보는 관광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여행의 차이는 바로 이런 배경지식과 준비과정에서 결정되는 것 같다. 미술뿐만 아니라 문화, 건축, 음식 등 타 지역에서 관광이 아닌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나의 칼럼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여행에서 지식을 얻어 돌아오고 싶다면
떠날 때 지식을 몸에 지니고 가야 한다.*

- 사무엘 존슨(영국시인, 평론가 1709~1784)

테마가 있는 여행

20

아라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역사의 고장

함안

////////////////

계속되던 한파가 물러가고 오랜만에 영상의 기운을 회복했던 지난 2월 9일, 여행의 설렘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2월의 여행지는 아라가야의 고도(古都) 함안. 지난 2011년 이후 오랜만에 찾는 함안이라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최원갑, 박성의 씨가 동행하면서 함안여행에 대한 설렘은 더욱 커졌다.



1시간 30여 분을 달려 첫 방문지인 함안박물관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관광해설사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박물관 외관부터 아라가야의 독특한 유물인 ‘불꽃무늬 토기’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함안박물관은 지금의 아라가야라 불리는 고대 안라국(安羅國)과 관련된 유물을 중심으로 함안지역의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함안박물관에는 1992년 출토된 4~5세기 수장층의 말 갑옷과 환두 대도, 옥제 목걸이와 같은 지배계급의 유물과 수레바퀴 모양의 토기, 불꽃무늬가 있는 굽다리접시 등 아라가야만의 독특한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토기류를 비롯해 도항, 말산리고분군 일원에서 출토된 안라국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또, 전시실 한편에는 지난 2009년 함안 성상산성에서 발견된 씨앗에서 피어난 붉은 연꽃인 ‘아라홍련’을 알리는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700년 전, 고려시대의 연꽃 씨앗에서 발아되어 당시 큰 화제를 모은 아라홍련은 지금은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 함안박물관 곳곳에 피어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전시실을 모두 둘러본 후 박물관 뒤편에 자리한 말이산고분군으로 발길을 옮겼다. 말이산고분군은 아라가야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는 고분군으로, 아라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까지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대형봉토분 9기를 포함해 200여 기의 고분이 발굴 조사되었다. ‘말이산(末伊山)’이라는 이름은 ‘머리산’의 소리음을 빌려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우

두머리의 산’ 즉, ‘왕의 무덤이 있는 산’이라는 의미이다. 고분은 약 2km 남북으로 이어진 주능선과 서쪽으로 뻗어나온 여덟 갈래의 가지 능선에 웅장하게 조성되어 있어 약 500년간 찬란했던 아라가야의 고분문화를 생생히 보여준다.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회의에서 고대가야를 대표하는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으며, 현재 가야고분군을 대표하는 김해 대성동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함께 2020년 최종 등재를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분군 능선에 올라서자 탁 트인 전망과 함께 출지어선 고분군이 한눈에 들어온다.

함안여행의 두 번째 방문지는 아름다운 풍광이 눈길을 사로잡는 ‘무진정’으로, 조선 중종 때 문신인 무진(無盡) 조삼(趙參) 선생이 후진 양성과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 지금의 자리에 직접 지은 정자이다. 팔작지붕과 누마루 형식의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건물로, 조선 전기의 정자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무진정은 경남 비경 100선에 꼽힐 정도로 유서 깊고 아름다운 명소이다. 무진정 아래에 자리한 1천여 평의 반월형 연못 주위에는 아름다운 산책길이 조성되어 지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매년 4월 초파일에는 전통 불꽃놀이 할 수 있는 낙화놀이가 이곳에서 펼쳐지면서 장관을 연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무진정 탐방을 마지막으로 오전 일정을 마친 회원가족들은 함안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에서 맛있는 석식불고기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후 첫 방문지인 고려동(高麗洞) 유적지로 향했다. 고려동 유적지는 고



려 후기 성균관 진사였던 이오(李午) 선생이 고려가 멸망하자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이 곳에 거처를 정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그 뜻을 받들어 오늘날까지 '고려동'의 이름을 지켜오고 있다. 고려 유민의 거주지임을 뜻하는 '고려동학(高麗洞壑)' 비석이 방문객을 먼저 맞는 고려동에는 고려종택과 별당인 자미정(紫薇亭), 그리고 이오 선생의 현손인 여주 이씨 부인의 지극한 효심에 하늘이 감동해 우물에서 전복이 나왔다는 신기한 일화가 전해지는 우물 복정(鰔井) 등이 자리하고 있다.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고려동 유적지를 돌아본 회원 가족들은 다육화분 만들기 체험을 위해 체험장인 동동바구농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동동바구'는 홍수가 나면 바구(바위의 경상도 사투리)가 동동 떠다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 곳에서는 블루베리 생과 및 가공품을 비롯해 다육식물, 나무공방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환한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는 사장님을 따라 체험장인 실내하우스에 들어서자 셀 수 없이 많은 다육식물들이 회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방문객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어린왕자'에 등장하는 바오밥나무에서부터 이름조차도 생소한 다육식물들이 하우스를 가득 채우고 있다. 체험은 뒷전, 우선 다육식물 관람에 나선 회원들은 형형색색 저마다 개성이 다른 다육식물들로부터 시선을 떼지 못한다. 마치 식물원과도 같은 하우스를 천천히 둘러본 회원들은 사장님의 설명에 따라 미리 준비해둔 다육식물을 화분에 직접 옮겨 심으며 자신만의 다육화분 만들기에 도전했다.

체험 후에는 정기회원 가족 모두가 기다리던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최원갑, 박성의 씨의 미니 콘서트가 펼쳐졌다. 오페라 아리아에서부터 가곡, 창작곡악가요 등 다채로운 무대에 회원들의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공연장에서의 만남을 기억하며 아쉬움을 달랜 회원 가족들은 단원들의 콘서트를 마지막 일정으로 함안여행을 마무리했다.

아라가야의 고도(古都) 함안에서 펼쳐졌던 2월 테마여행, 오랫동안 전해져온 아라가야의 숨겨져 있던 정기회원들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복사꽃 아름다운 청도 봄여행



일정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10:00	청도 도착, 청도와인터널, 소싸움테마파크 방문
12:00	중식
13:00	청도읍성, 석빙고, 도주관 등 답사
15:00	청도복숭아시험장 견학
15:30	딸기따기 체험
16:30	부산으로 출발

4.13일

아름다운 복사꽃이 만개한 청도로 떠나는 봄나들이로, 우리나라 유일의 복숭아 전문연구기관인 청도복숭아시험장을 비롯해 청도의 정신이 담긴 문화유적을 둘러보며 유쾌한 봄을 즐겨본다.

03 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강필중(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서은순(남구 진남로)
김단비(남구 전선동로)	이지은(영도구 해양로)
김명숙(해운대구 센텀중앙로)	정희주(남구 석포로)
김용철(남구 황령대로)	채인숙(해운대구 좌동순환로)
류정미(해운대구 선수촌로)	최광우(남구 황령대로)

● 기존 회원

강오수(수영구 광안해변로)	오혜숙(해운대구 송정1로)
류혜경(부산진구 백양대로)	이재희(해운대구 해운대로)
박정순(수영구 구락로)	이종남(남구 석포로)
손영희(사상구 백양대로)	임순옥(해운대구 청사포로)
오현주(수영구 광안해변로)	정인옥(해운대구 대천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전화·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제 2 회



저출산시대! 태어난게 예술이니 날 말리지마 키즈 웰컴 콘서트

2018.3.23 | 금 | AM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출 연 지휘-최수열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진행-김기욱(개그맨)

관람객 태교가 필요한 임산부, 영유아 공연 관람이 필요한 **엄마와 아이들** (모든 연령입장 가능)

입장권 전석 1만원 **특별할인** 아이동반 관람객·임산부·다자녀가정 **전석 1천원**

무료셔틀버스 운행 대연역 5번출구에서 유엔로터리 방향 100m / 공연시작 30분전 1회 운행

※ 공연 관람시 아기가 운다고 눈치주거나 혼내는 어른은 퇴장되며 환불도 안됩니다.

한국초연 *H. Parry Symphony No.5* **Symphony No. 5-III**

L. Bernstein / G. Donizetti / J. Brahms / H. Parry



테너 문한솔

바리톤 이정근

첼로 Eric-Maria Couturier

바이올린 김재원

지휘 김봉미

2018. 3. 29 목 오후 7 : 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  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입장권 > 균일 2,000원 문의 > 051-607-3117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 - 금 18:30 / 19:00 (19:30분 공연기준, 공연있는 날에 한함)

View Plus

INVITATION TO THE ARTS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엑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도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울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8 우리 춤 산책



평소 실제 강습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춤의 기량을 갈고 닦아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우리 춤에 대한 열정과 빼어난 춤 솜씨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2018 우리 춤 산책'이 3월 8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로 새롭게 출발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이매방류, 한영숙류), 제92호 태평무(강선영류)를 비롯해 지진춤, 한량무, 원향지무, 화조풍월, 소고춤, 오고무 등 다채로운 우리 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첫 무대는 단원 김주령, 권봉정, 오수연, 윤은하, 김시현이 선보이는 '오고무'. 생동감 넘치는 북 소리와 춤사위로 우리 문화를 알리는 국가적인 행사에서는 빠지지 않는 작품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김미란(뽕과리), 허태성(장구), 최의옥(북), 이현주(징)와 함께 멋과 신명이 넘치는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어서는 단원 이화성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강선영류)'를 선보인다. 경기도 도당굿의 무속음악과 무속춤을 우리 춤의 시조라 일컫는 한성준 선생에 의해 제구성된 '태평무'는 경쾌하고 특이한 발짓춤에 손놀림이 우아하고 섬세하며 절도가 있어 '정중동(靜中動)'의 흥과 멋을 지닌 춤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다른 정중동의 춤으로 사랑받고 있는 '살풀이(한영숙류)'는 단원 정진희, 전현우의 춤사위로 선보인다. 한영숙류 살풀이는 단아하면서 담백한 구성이 특징으로, 수건을 활용한 섬세한 손끝의 움직임과 흰 버선의 발 디딤을 통해 우리 정서를 표현한다.

이어서는 멋과 흥을 아는 사대부의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춤으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된 '한량무(김진홍류)'를 장래훈의 춤사위로 선사한다. 단원 박창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예능보유자인 원향 엄옥자 선생의 독창적인 춤 '원향지무(엄옥자류)'로 관객과 만나며, 흥이 많아 춤 마디마디에 멋이 흐르는 한편 즉흥성을 띠고 있는 '살풀이춤(이매방류)'은 단원 이현숙, 황선희, 김병주의 3인무로 새롭게 재구성,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한 폭의 그림같은 서정적이고 역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그린 '화조풍월(엄옥자류)'은 단원 권봉정이,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로 호남지방의 진도씻김굿에서 유래한 '지전춤'은 단원 김동숙, 장래훈의 춤사위로 선보인다. 농악에서 벅구놀음의 독특한 춤사위와 가락을 짜임새 있게 구성한 '소고춤'은 단원 김시현이 김미란(상쇠), 김운호(장구), 최의옥(북), 허태성(징), 이창규(태평소, 객원)와 함께 경쾌하면서도 절도있게 휘몰아치는 장단의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설장고놀이(김병섭류)'는 호남의 독특한 가락을 특징으로 발 디딤이 섬세하여 여성적인 느낌이 드러나는 춤으로, 단원 서정연, 김공주, 이현정, 김진영, 김경미의 춤사위가 김운호(설장고, 상쇠), 허태성(북), 최의옥(징), 한상훈(태평소, 객원)의 연주로 선보인다.

일시 3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3121~2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8회 정기연주회 봄이 오는 소리



지휘 최수열



클라리넷 이환석

새봄의 따뜻한 기운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8회 정기연주회 '봄이 오는 소리'가 3월 9일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고 부산 출신의 젊은 클라리네티스트 이환석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원곡으로 널리 알려진 멘델스존의 '봄노래'를 시작으로, 감미롭고 아름다운 클라리넷 특유의 연주 테크닉과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춤과 축제를 연상시키는 에너지 넘치고 다이내믹한 리듬이 돋보이는 베토벤 교향곡 제7번으로 활기찬 새봄의 기운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특히 이번 무대의 협연자로 관객과 만나는 클라리네티스트 이환석은 지난 1월, 음악적 기량이 뛰어난 부산 지역 음악인을 발굴,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 '2018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협연자 실기 전형' 목관부문의 최종 합격자로, 이후 음악적 행보가 기대되는 차세대 연주자이다.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독주자과정,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Master 과정을 졸업했으며 제6회 제주 한국음악협회 음악콩쿠르 최우수상, 제3회 부산 한국음악교육협회 학생음악경연대회 금상, 제2회 부산 한국음악신문사 전국학생음악콩쿠르 관악부 2위, 이탈리아 제7회 'Giovani Musicisti-Citta di Treviso' 국제콩쿠르 실내악 2위, 이탈리아 제25회 'Citta di Barletta' 국제콩쿠르 실내악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

한 바 있다. 이환석은 울산청소년교향악단 수석, 원주시립파루관악단 단원, 서울클라리넷콰이어 서울24 단원, 독일 ORSO Philharmonics Orchestra 객원 수석 및 단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MUSIKA 앙상블 리더로 활동 중이다. 이환석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은 모차르트 유일의 클라리넷 협주곡으로, 독주자의 테크닉과 아울러 클라리넷 특유의 음색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곡이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인 멘델스존의 '봄노래'는 멘델스존이 작곡한 총 49곡의 '무언가' 중 가장 잘 알려진 곡으로, 흐르는 듯한 낭만적인 선율로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의 환희와 봄의 정취를 한껏 표현하고 있다. 원래 피아노를 위해 작곡된 곡이지만 현재는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의 독주 및 연주용으로 편곡되어 연주되고 있다. 마지막 곡인 베토벤 교향곡 제7번은 '영웅', '운명', '전원', '합창' 등 별도의 표제가 붙지 않으면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으로, 전쟁과 실연을 극복한 베토벤의 밝고 즐거운 기분이 곡에 반영되면서 발랄한 생명력과 힘이 넘치는 작품이다. 특히 리듬의 역동성은 이 곡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히는데 바그너는 이 곡을 '무도의 신화'라 칭하며 지금까지 세계의 예술이 창조하지 못했던 명쾌한 작품이라고 높이 평했고, 리스트는 '리듬의 신격화'라 표현하기도 했다.

일시 3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전곡 연주회 '거장, 거장을 만나다'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5곡 전곡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전곡 연주회 '거장, 거장을 만나다'가 3월 14일부터 이틀간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피아니스트 주희성, 파스칼 드브이옹, 노경원, 김영호, 이미주가 화려한 테크닉과 깊이있는 해석으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첫날인 14일에는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1번, 제2번, 제3번이, 15일에는 제4번, 제5번이 연주된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인 '협주곡 제1번'은 젊은 피아니스트로서 활동을 시작한 베토벤의 10대 시절 생기가 넘치는 작품으로, 날카로운 해석과 탁월한 음악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주희성의 연주로 들려준다. New Orleans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영국 Dudley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Simone Belsky Music Award 등에서 모두 우승하는 등 세계 콩쿠르를 통해 화려한 경력을 쌓으며 세계적인 연주자로 거듭난 주희성은 현재 모교인 서울대학교 기악과 교수로 연주활동뿐만 아니라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유머러스함이 돋보이는 '협주곡 제2번'은 비오티, 부조니, 리즈 콩쿠르를 석권한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스칼 드브이옹이 연주한다.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파스칼 드브이옹은 2001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로훈장 기사장을 수여받았으며, 현재 독일 베를린 음대 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인제대학교 교수이자 김해국제음악제 집행위원장 겸 총감독으로 있는 노경원은 베토벤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작품이자 오늘날 가장 자주 연주되는 '협주곡 제3번'을 연주한다. 노경원은 Dreiklag 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했으며, 그동안 베를린 태평양페스티벌, 드라이클랑, 뮤직알프, 슈베르티아텐, 통영, 구미 등 국내외 유명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바 있다.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영호는 베토벤 중기의 걸작으로 꼽히는 '협주곡 제4번'을 들려준다. 김영호는 그동안 서울스프링페스티벌, 프랑스 뮤직알프페스티벌, 대관령국제음악제, 스페인 인터내셔널 피아노 페스티벌 등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구미국제음악제 음악감독을 역임하면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피아니스트는 한국인 최초로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 입상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주로, 그 이름에 걸맞은 장대함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협주곡 제5번 황제'를 들려준다. 이미주는 현재 베를린 국립예술대 교수이자 인제대학교 자문교수로 있으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부조니, 뮌헨 ARD, 비오티, 제네바 등 국제콩쿠르 심사위원으로 꾸준히 초청 받고 있다.

일시 3월 14일-15일 수-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뮤지컬 '광화문 연가'



세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故 이영훈** 작곡가의 명곡들로 완성된 주크박스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부산을 찾는다.

30

시적인 가사와 함께 서정적인 발라드 음악으로 1980~90년대 대한민국 '팝발라드' 장르를 개척한 작곡가 이영훈은 1985년 가수 이문세의 3집 음반 '난 아직 모르잖아요'를 시작으로 '휘파람', '소녀'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가요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후 1987년, '사랑이 지나가면', '이별이야기', '그녀의 웃음소리뿐' 등이 수록된 이문세 4집으로 그해 골든 디스크 대상/작곡가상을 수상하며 최고 작곡가로 우뚝 섰다. 당시 150만 장이 팔린 3집 음반이 밀리언셀러 시대를 연 신호탄이었다면 무려 285만 장이라는 판매기록을 수립한 4집 음반은 그때까지의 사상 최대 음반 판매기록을 뒤엎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1988년 발표된, 모든 역량이 녹아든 명반 이문세 5집은 전주만 수십만 장에 달하고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광화문 연가', '붉은 노을' 등 거의 모든 수록곡이 히트하면서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그의 주옥같은 명곡들은 시대를 넘어 현재에도 끊임없이 리메이크되며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그 추억 속 명곡들과 함께 1980~90년대 격변의 시기,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연극과 뮤지컬을 넘나들며 관객의 심장을 저격하는 작가 고산웅과 자신만의 분명한 색깔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

는 이 시대 최고의 연출가 이지나는 이번 무대에서 관객들이 지닌 추억 속 명곡들은 원곡의 정서를 해치지 않게 최대한 편곡을 자제하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곡들에 한해서는 새로운 감동을 전하기 위해 클래식한 오케스트라 편곡에 빅밴드 음악을 더해 서정적인 발라드로 풀어냈다.

2017년, 중년의 명우는 임종을 1분 앞두고 사경을 헤매는 중이다. 이 때 명우 앞에 인연을 관장하는 신(神) 월하가 나타나 명우와 함께 옛 기억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가 명우를 처음 데려간 곳은 명우가 첫사랑 수아를 처음 만난 1984년 봄 덕수궁 사생대회. 당차고 명량한 수아에게 반해 사랑을 키워가던 젊은 명우는 먼저 대학에 진학한 수아의 시위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의 진압과 정에서 수아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차츰 수아와 멀어지게 된다. 중년 명우는 월하와 함께 자신의 기억 속 장면을 여행하며 젊은 시절의 아쉬움과 후회, 알 수 없는 기억 속 빈집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중년 명우' 역의 검증된 연기력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안재욱, 이진명을 비롯해 구원영, 차지연, 허도영, 박강현, 이연경 등 실력과 배우들이 충출동, 추억 속 진실한 사랑을 찾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일시 3월 16일 금요일 오후 8:00, 17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8일 일요일 오후 2:0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인 4매에 한해 20% 할인)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부산시립극단 제61회 정기공연

부산시립극단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 '2018 MACBETH'



2018년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극단이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첫 번째 기념공연 '2018 MACBETH(맥베스)'가 3월 19일부터 6일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1998년 2월 창단한 부산시립극단은 그동안 고전극에서부터 사실극, 부조리극, 악극, 뮤지컬, 한국 현대극 등 다양한 시대적 작품들과 부산의 원로 연출가 및 신예 연출가의 객원 연출 작품으로 관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아왔다. 또, 초청공연, 특별공연, 국공립페스티벌, 해외공연, 교류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한편, 문화도시 부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창단 20주년을 맞아 올 한 해 세 차례 정기공연을 통해 창단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축하 무대를 기획하고 있는 부산시립극단은 그 첫 무대로 2~30대층 젊은 관객들을 겨냥한 연극 '2018 MACBETH(맥베스)'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극단 자유바다 예술감독으로 있는 정경환의 연출로, 셰익스피어 고전을 현대적으로 조명한 '2018 MACBETH(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원작으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재해석, 원작의 인물들을 구체적인 우리 역사속의 유사한 배경적 인물로 변화시켜 인간의 원죄에 대한 대물림, 죄의식을 통한 몰락 등 한국적인 정서로 새롭게 선보인다.

반복되는 반란으로 불안한 정국,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맥베스 장군과 벤코우 장군이 참전한다. 무능한 왕을 두고 내시 '조고'가

재상으로 권력을 장악한 왕궁, 왕과 조고, 전체 신하와 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란의 진압을 기원하는 곳이 진행된다. 하지만 승전을 확신 못한 신하들은 전령들이 전해 오는 소식마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결국 맥베스 장군과 벤코우 장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영웅으로 개선할 두 장군에 대한 백성들의 환호가 커질수록 조고의 고민이 깊어지는 한편 신하들 역시 새로운 권력에 대해 불안해하는데... 연출가 정경환은 우리 역사에서도, 그리고 현재에도 수많은 '맥베스'가 있다는 전제하에 등장인물을 새롭게 구성, '맥베스'가 전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부른 죄와 벌, 그리고 그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연출과 희곡 창작을 병행해오고 있는 정경환은 그동안 부산연극제 희곡상(1998, 2000, 2011년), 부산연극제 연출상(2001년),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2011년), 2011년 올해의 한국희곡상(한국희곡작가협회), 2015년 제1회 한형석연극상, 2016년 올해의 베스트작품상 등을 수상하는 등 부산의 대표적인 극작가,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맥베스 역에 이혁우, 맥베스부인 역에 김은희, 벤코우 장군 역에 황창기 등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이 출연, 팽팽한 연기대결을 펼친다.

일시 3월 19일(월)~24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5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風流, 봄을 노래하다'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흥겨운 창작국악으로 전해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風流, 봄을 노래하다'가 3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민영치, 이현철(장구), 김효영(생황), 이동영, 하윤주(정가)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6곡의 창작국악곡 중 생황협주곡 '바람의 섬'을 제외한 5곡 모두가 부산 초연곡으로, 창작국악과의 특별한 만남을 선사한다.

첫 곡인 국악관현악 '대취타 易'는 지난 2012년,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작곡가이자 연주가인 원일이 직접 작곡, 취임연주회에서 초연했던 작품으로 현대적인 긴장감과 장쾌한 타악의 울림,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관현악적 어울림이 돋보이는 곡이다. 이어지는 곡은 대구시립국악단 단원 이정호가 작곡한 정가를 위한 국악관현악 '별한'으로, 국악관현악 규모로는 이번 무대에서 처음으로 소개된다. '정가'는 전통성악의 한 갈래로, 이번 무대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수자인 이동영,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인 하윤주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현재 아정악회 멤버로 있는 이동영은 제28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정가부문 금상, 제26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정가부문 금상, 제8회 전국정가경창대회 설총상(종합대상)을 수상했으며, 국립국악원 정악단 준단원을 역임한 하윤주는 제27회 온나라국악대경연 성악부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악의 전통적 리듬과 클래식적 풍부한 화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면서도 감성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국악관현악 '아리랑 랩소디

(이지수 곡)'에 이어 관이 가장 많은 36관 생황의 부드럽고 맑은 소리가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지는 생황협주곡 '바람의 섬(이준호 곡)'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인 생황주자 김효영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김효영은 2009/20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아트프론티어, 2014 파리 시페 레지던시에 선정됐으며, 2013 여성신문사 주최 신진여성문화예술인상, 2015 KBS국악대상(관악부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김선제 곡 '아름다운 인생 II'는 4/4박의 독특한 롬바 리듬과 2/4박 전통 휘모리 리듬을 비교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곡이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국악관현악을 위한 설장구 협주곡 '신기(神氣)'로, 고도의 리듬감과 타법기술을 필요로 하는 곡이다.

이 곡의 작곡가이자 국악연주가인 민영치와 2015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일반부 대통령상, 2015 21C한국음악프로젝트 금상을 수상한 이현철이 장구 협연을 맡아 신명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그동안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클래식 및 대중음악과 국악의 접목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민영치는 싸이, 신해철, 패닉, 강산에, DJ DOC 등의 대중가수들을 비롯해 정명훈, 조수미, 정명화, 김덕수, 이광수, 김대환, 양방언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무대에 서왔다.

일시 3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VI ‘운명’



지휘자 김난새



피아노 피터 오브차로프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이 3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10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시작된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은 악성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의 교향곡 전곡을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김난새와 그가 이끄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준높은 연주로 들려주면서 부산음악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기악 협주곡을 편성,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협연무대가 함께 펼쳐지면서 회가 거듭될수록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휘자 김난새는 1977년 최고 명성의 카라얀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유러피안 마스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거쳐 모스크바 필하모닉, 독일 캄머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으며,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와 수원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거쳐 현재 성남시립예술단 총감독이자 상임지휘자, 한경 필하모닉 초대 예술감독으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9개의 베토벤 교향곡 중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고 있는 교향곡 제5번 ‘운명’과 노르웨이풍의 서정과 리스트풍의 화려한 연주가 어우러지는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16’을 피아니스트 피터 오브차로프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1808년에 완성된 교향곡 제5번 ‘운명’은 제1악장 첫머리에 서주 없이 바로 등장하여 곡의 시작을 알리는 네 음으로 된 모티프를

가리켜 베토벤이 ‘운명은 이처럼 문을 두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붙여진 제목이다. 이처럼 유명한 주제 동기로 운명의 문을 연 이 작품은 4악장 승리의 찬가로 마무리되면서 청력상실이라는 역경을 이겨내고 이 위대한 불멸의 작품을 완성해낸 베토벤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교향곡 ‘운명’에 앞서 첫 곡으로는 ‘페르귄트’와 더불어 그리그의 대표작이자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 중 하나인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16’을 들려준다. 협연을 맡은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피터 오브차로프는 제3회 국제 영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함께 은메달을 공동 수상하는 등 일찍이 음악적 두각을 보이며 오스트리아 Gradus ad Parnassum 콩쿠르 우승(2004), 이탈리아 Silvio Bengalli piano prize 콩쿠르 2위(2004), 오스트리아 비엔나 베토벤 국제콩쿠르 입상(2005), 독일 Kissinger Sommer 페스티벌 ‘Young Artist of the Year’ 수상 등 다수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전문연주자로서의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그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국가에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터 오브차로프는 2008년부터 오스트리아 Allegro Vivo Summer Academy 초빙교수이자 심사위원, 일본 도쿄 Showa University 초빙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일시 3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3 '오페라 이야기 1'



지난 한 해 (재)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2018년 첫 무대가 3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인 '마티네 콘서트'는 특히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의 깊이 있는 해설로 그동안 관객들을 행복 한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왔다. '오페라 이야기'라는 부제로 세 차례 진행되는 이번 시즌에서는 3월 28일 모차르트와 로시니에 이어, 4월 25일 도니제티, 5월 25일 생상과 구노의 오페라 하이라이트 무대가 꾸며진다.

그 첫 무대로 이번 무대에서는 춘천시립교향악단, 팬아시아필하모니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는 이종진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소프라노 양제경, 조운정, 테너 전병호, 바리톤 김은곤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의 서곡 및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세비야의 이발사'는 '피가로 3부작'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극작가 보마르셰가 쓴 3부작 희곡 중 두 번째와 첫 번째 작품으로, 원래는 이탈리아의 작곡가 파이치엘로가 '세비야의 이발사'를 발표한 후 이어 모차르트가 2부작인 '피가로의 결혼'을 발표했으나 30년 뒤 같은 내용, 같은 제목으로 작곡된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더 유명해졌다. 지휘자 이종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다수 오페라 무대와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천시립

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멕시코, 불가리아, 폴란드 등 외국 유수의 교향악단들을 지휘했다.

협연자인 소프라노 양제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프랑스 파리음악고등사범학교, 비엔나시립음대를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국제음악콩쿠르 1위, 세종문화콩쿠르 최우수상, KBS 서울신인음악콩쿠르 은상, 중앙콩쿠르 1위 없는 2위, 미국 플로리다 오페라(YPO) 국제콩쿠르 1위, 중국 닝보 국제콩쿠르 2위, 스페인 빌바오 국제성악콩쿠르 3위 등에 입상한 바 있다. 소프라노 조운정은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오페라 주역 및 뉴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남팜스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다수 무대에 서왔다. 테너 전병호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음대, 에센음대를 졸업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2015년 서울 석세스 어워드 성악부문 대상, 2016년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바리톤 김은곤은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비보 발렌시아 'F. Torrefranca' 국립음악원, 노르마 시립음악원, 로마 ARAM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Citta di Alcamo' 국제콩쿠르 2등, 'Leopoldo Mugnone' 국제콩쿠르 3등, 'Fausto Ricci' 국제콩쿠르 최고연주자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일시 3월 28일 수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7회 정기연주회

Symphony No. 5-III



지난해부터 정기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작곡가들의 5번 교향곡을 연주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2018년 첫 번째 정기연주회로 'Symphony No. 5' 세 번째 무대를 마련한다.

제5번 교향곡을 통해 바로크에서부터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선사하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수석지휘자 김봉미의 지휘로 헨리 퍼셀 이후 최고의 영국 작곡가로 평가받는 허버트 페리의 교향곡 제5번을 한국 초연으로 소개한다. 정기연주회의 또 다른 레퍼토리인 '오페라'에서는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작품 중 하나인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첫 곡인 경쾌한 리듬감이 매력적인 '캔디스 서곡'을 시작으로, 이어서는 테너 문한솔, 바리톤 이정근이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여러분', '아마도 하늘이 보내주신', '남 몰래 흘리는 눈물' 등을 들려준다. 부산대학교와 독일 국립 슈투트가르트 Opernschule를 졸업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Wilhelma극장 주역가수로 활동한 테너 문한솔은 독일 현지에서 오페라 에브게니 오네긴, 사랑의 묘약, 티토의 자비,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미술 피리 등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경희대학교와 이태리 페라라 국립음악원, 페라모 국제성악아카데미, 로마 벨레트리 오페라 아카데미, G. Frescobaldi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하남시립여성합창단 지휘자, 하남실버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바리톤 이정근은 제32회 엔나 파올로 벨리아·줄리에따 씨미오나토 국제오페라콩쿠르 1위, 마리오 델 모나코·삐에트로마스카니·

로지나 엔 페란테 국제성악콩쿠르 2위에 입상한 바 있다.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의 마지막 대규모 관현악 작품인 '바이올린과 첼로의 이중협주곡'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과 첼리스트 에릭-마리아 쿠티리에(Eric-Maria Couturier)의 앙상블로 들려준다. 2017년 프랑스 Banque Populaire재단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국제무대에서 연주 활동하는 김재원은 소피아 비르트오조 국제콩쿠르 2위(불가리아, 2017), 브람스 국제콩쿠르 바딤 레핀(Vadim Repin) 특별상(오스트리아, 2017) 등을 수상하고 현재 파리고등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DAI)에 재학 중이며 파리국립오페라하우스 아카데미 단원, 원코리아 유스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Trio Talweg의 첼리스트,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객원수석으로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에릭-마리아 쿠티리에에는 현재 스위스 루체른페스티벌 교수, 프랑스 파리고등음악원 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20세기 초를 전후해 영국 음악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허버트 페리의 교향곡 제5번으로,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숨겨진 명곡으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일시 3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7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노자와 베토벤 1 '고주망태(孤酒忘態)_1.고(孤)'



지난해 철학과 클래식 만남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노자와 베토벤'이 2018년, 새로운 주제로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

36

'노자와 베토벤'은 지난 2015년 첫 선을 보인 후 수차례 무대를 통해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클래식으로 현 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전하면서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해왔다. 2017년 '희로애락(喜怒哀樂)'에 이어 올해 새롭게 만나는 주제는 '고주망태(孤酒忘態)'. '술에 취해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단어 '고주망태'를 '외로워서(孤) 술(酒) 한 잔 하고, 잊고(忘) 싶으나 결국 자신이 택할 마지막 태도(態)는 무엇 인지'를 묻는 새로운 해석으로,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감과 위로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우리 시대의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더욱 깊고 풍성한 음악과 철학이 함께하는 무대로, 특히 올해는 매 공연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들이 함께하면서 보다 더 풍성한 연주를 들려준다. 또, 7월과 10월에는 무대와 객석 간의 거리를 좁혀 관객들이 보다 생동감 있는 무대를 느낄 수 있도록 중극장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대중과 소통하는 철학자로 명성이 높은 최진석 교수는 인문·과학·예술 분야 국내 최고 석학들이 모인 인재육성기관인 건명원(健明苑) 초대원장으로, 그동안 삶의 지혜와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만나왔다. 최진석

교수는 그를 '국민 철학교수'로 알려지게 했던 'EBS 인문학 특강'을 엮은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2015)'을 비롯해 2015년 건명원(健明苑)에서 진행한 다섯 차례의 철학 강의를 묶은 '탁월한 사유의 시선', 지난해 발간된 첫 산문집 '경계에 흐르다' 등 수 권의 저서를 펴낸 바 있다.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필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오충근은 미국 보스턴콘서바토리 오케스트라, 러시아 국립에르미타주 오케스트라, 노스체코 필하모닉, 헝가리 사바리아 심포니오케스트라,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등을 지휘했으며, 2017/18 독일 베를린필하모닉홀 객원 지휘자로 무대에 선 바 있다.

'2018 노자와 베토벤'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고(孤)'라는 주제로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철학과 이론을 최진석 교수와 함께 풀어본다.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의 협연으로 스비리도프 '눈보라' 중 '올드 로망스'를 비롯해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 브람스 교향곡 제3번, 헝가리무곡 제1번과 제4번을 감상할 수 있다.

일시 3월 31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18년 새롭게 돌아온
'노자와 베토벤'

지휘자 오충근

운명적인 만남 EBS 인문학 특강을 통해 알고, 그의 저서 '인간이 그리
는 무늬'를 읽고 나서 최진석 교수님을 꼭 만나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
다. 평생 처음 책의 저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실행했
으며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의 4시간 동안 저에게는 충격, 감
동, 환희, 자각 등등 매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잠자고
있던 제 온몸의 세포들을 모조리 깨우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이런 자극
을 음악하는 동료들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바로
그 자리에서 콘서트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죠. 그리고 탄생한 것이 바로
'노자와 베토벤'입니다.

'노자와 베토벤'을 통한 철학적 성장 처음에는 단순히 최 교수님이 잘 정
리해 두신 논리들을 음악세계와 접목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머
리와 가슴 속에 있는 지성과 감성을 말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술과 방
법을 잘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라, 그의 관념적 표현력과 추구
하려는 방향성 등이 그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으리라 판단했지요. 그
이후 약 3년이 지난 지금 '노자와 베토벤'을 통해 제 자신의 철학적 성장
을 확인하고 나니 관객들에게도 예술적, 철학적 시선의 높이에 도달하
는 희열이 어떤 것인지 꼭 경험해보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관객들의 높은 몰입도 인상 항상 자신의 뒷모습만 보여 주던 지휘자가
관객들의 반응을 무대에서 직접 바라본 경험은 참 새롭고 재미있었어
요. 기대보다 관객들의 몰입도가 훨씬 높았고 이런 반응은 연주에도 좋
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필기하는 분도 많았고 부모님 손을 잡은
어린 학생들도 많았지요. 연주 후 기념촬영 때 만난, 멀리 충청도나 영

호남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기억에 남는군요. 역시 마지막 락(樂) 공연
분위기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자신만의 '고주망태' 지난해는 '희로애락'이라는 주제
로 인생의 전 과정을 조망해 보았습니다. 관객들뿐만 아니라 연주자들
도 함께 각자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고 '기쁨,
노함, 슬픔, 즐거움',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의 주제 '고주망태'
는 사전적 의미보다 우리 모두가 각자 느끼는 자신의 '고주망태'한 모습
을 떠올리며 외로워서(孤) 그래서 술(酒) 한 잔 하고, 잊고(忘) 싶으나 결
국 자신이 택할 마지막 태도(態)는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조금은 해
학적으로 풀어갈까 합니다. 유명 서예가이신 강병인 선생께서 휘호를
써주셨는데 첫 공연에 직접 관객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창
배일동 선생과 함께하는 두 번째 공연도 기대되며 매 공연 새로운 협연
자를 만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철학과 예술의 만남 원숭이와 인간의 유전자 차이는 2%밖에 나지 않는
다 합니다. 그러나 한 쪽은 동물원 안에 갇히는 처지가 되고 다른 한 쪽
은 자유로이 구경하는 입장이 되었죠. 진보의 수단을 동물은 진화로 인
간은 문화로 선택한 것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우리 각
자가 어떤 문화적 수준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얼마나 동물에 가깝게 사
느냐 혹은 인간답게 사느냐를 기증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고통 없
이 이루어지는 달콤한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달콤함을 추
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능이 지배하는 세상이지요. '노자와 베
토벤'은 철학과 예술의 만남입니다. 결코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노자와 베토벤'의 관객들이 조금의 고통은 참고, 쉬운
길은 잠시 포기하더라도 탁월한 시선의 높이를 맞보는 경험을 하기 바
라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고통에 따른 환희는 온전히 고통을 견딘 자의
몫입니다.

PROGRAM

Concert 1.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 - 1.고(孤)' 3월 31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베토벤 - 교향곡 제3번 작품 55 '영웅'
스비리도프 - '눈보라' 중 '올드 로망스'(바이올린_양경아)
브람스 - 교향곡 제3번 작품 90 / 브람스 - 헝가리무곡 제1번, 제4번

Concert 2.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 - 2.주(酒)' 7월 7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드뷔시 -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술, 여자 그리고 노래' 작품 333
배일동 - 장진주(창_배일동)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

Concert 3.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 - 3.망(忘)' 10월 6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드보르자크 - 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장조 작품 22
베토벤 - 현악4중주 제13번 작품 130 '카바티나'
김동진 - 못잊어(소프라노_김성혜)
안정준 - 아리 아리랑 / 차이콥스키 -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48

Concert 4.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 - 4.태(態)' 12월 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시니 - 오페라 '도둑까치' 서곡 / 시벨리우스 - 핀란드야 작품 26
리체이 - 〈부산환상곡〉 중 2악장 '도라지'(바이올린_양경아, 해금_나리)
베토벤 - 교향곡 제5번 작품 67 '운명'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익스트림 댄스 코미디 '브레이크 아웃'



한국을 대표하는 K-Dance 비보이들의 현란하고 신나는 익스트림 댄스를 만날 수 있는 익스트림 댄스 코미디 '브레이크 아웃'이 3월 30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국 비보이 공연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 '브레이크 아웃'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 한국 비보이 댄서들의 현란한 춤과 기술(K-Dance), 한류 콘텐츠 아이콘인 K-Pop,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밀도 있는 연기력과 고급 스런 코미디가 어우러지면서 '익스트림 댄스 코미디(Extreme Dance Comedy)'라는 새로운 장르로 탄생했다.

지난 2007년 국내 초연과 함께 세계 공연의 중심부인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 무대에 올려진 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 박스 오피스 No.1과 'Cavalcade Best Walking Group'을 수상한 '브레이크 아웃'은 이듬해인 2008년 뉴욕 오프브로드웨이(Union Square Theater)에서 장기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09년에는 싱가포르 5회 공연 전회 매진, 말레이시아 4회 공연 전회 매진을 기록하는가 하면 2010년에는 콜롬비아 이베로아메리카노 페스티벌, 런던 탬즈 페스티벌, 인도 첸나이, 싱가포르 공연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자유를 향한 어설픈 죄수들의 좌충우돌 탈옥 이야기를 담은 '브레이크 아웃'은 죄수이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등장해 따뜻한 형제애를 보여준다. 고된 작업과 간수들의

감시로 희망없는 감옥생활을 하는 5명의 죄수들, 그러나 그들은 틈만 나면 간수들을 놀릴 기회를 엿보며 재치와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생활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신비한 힘을 지닌 비급(秘笈)이 떨어지면서 자유를 꿈꾸던 그들은 비급과 함께 바깥 세상으로의 탈출을 감행하지만 곧 경찰에 의해 쫓기는 신세로 변한다. 과연 이들은 탈옥에 성공할까?

'브레이크 아웃'은 극중 등장하는 신비한 비급이 바로 무대배경이 된다. 무대 전체가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면서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미술 같은 무대세트가 관객들에게 색다른 판타지를 선사한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짜릿하고 유쾌한 일탈을 꿈꾸는 그들의 몸짓은 어느새 가슴 뭉클한 환상적인 댄스로 변해가고, 이번 공연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마지막 5분간은 희망의 저편, 자유를 향한 배우들의 열정과 따뜻한 형제애가 현란한 춤과 비트박스로 쏟아지며 관객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익스트림 댄스(Extreme Dance)'의 세계를 선사한다.

일시 3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31일-4월 1일 토-일요일 오후 2:00, 6: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나는 덕후다展.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시민 참여전시

3월 2일(금)~18일(일)
부산시민회관 2층 전시실

3월 19일(월)~25일(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9층 엘 아레나 광장

무료(공연 관람 시 자율 기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32



공연일정

2일 오후 7:00 Brabie Dolls, Lady Good Man
9일 오후 7:00 L.A Bridge, 소년민
16일 오후 7:00 손무성, 김일두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유쾌한 전시 '나는 덕후다'전이 3월 한 달간 부산 시민회관 2층 전시실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9층 엘 아레나 광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로 새롭게 출발하며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라는 슬로건을 내건 부산시민회관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나는 덕후다'展은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작가 및 뮤지션들이 의기투합해 마련한 자리로, 제각기 다른 국적과 직업을 가졌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13명 '덕후'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미술 작품과 밴드 공연을 통해 펼쳐진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로는 Niall Ruddy, Michael Woods, Michael Melson, Matthew Eckersley, Karoline Anderson, Grace LaFace, B.D. Gilley 등 한국에서 교수 및 강사로 있는 외국인들을 비롯해 이정선, 도해진, 허동혁, 이정민, 김형건, 김영순 등 총 13명으로, 이들 작품 중 몇몇 작품들은 이미 미술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들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주 금요일(3월 2일, 9일, 16일) 오후 7시부터는 전시와 어우러질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함께 열리면서 미술과 음악, 예술 덕후와 일반 시민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공연 참가팀으로는 지난해 12월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렸던 '제4회 부산 직장인밴드 경연대회' 대상팀이었던 레이 디굿맨을 비롯해 바비돌스, 포크 솔로 소년민, L.A Bridge, 손무성, 싱어송라이터 김일두 등 쟁쟁한 실력을 갖춘 음악인들로, 생생한 라이브 무대로 축제의 흥을 돋운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에는 참여 작가들의 작업 과정과 그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면서 작가와 관람객들 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한편, 작품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한편 이번 전시는 참여 작가와 뮤지션들에게 더 많은 전시 및 공연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롯데백화점과 연계, 부산시민회관 전시가 끝나는 3월 19일부터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9층 엘 아레나 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보다 더 많은 관람객과 공감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만든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7회 정기연주회

천재의 고뇌와 모방



◆ 박진홍 음악평론가

40

2월 8일 저녁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천재의 고뇌와 모방’이라는 제목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연주 세 번째 순서가 무대에 올랐다. 이번 연주의 제목은 슈트라우스가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염두에 두고 ‘그림자 없는 여인’을 작곡한 것에서 떠올린 것이다. 최수열이 지휘를 맡은 후 공연마다 프로그램에 아우르는 제목으로 연주를 열고 있다.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와 음악과의 관계 등을 생각하게 해 신선하고 재미있다.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지휘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반부는 피아니스트 박종화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 연주되었다. 귀에 익은 웅장한 관악기의 도입을 시작으로 환상적인 연주가 이어졌다. 빠른 1악장에서 박종화는 분명하고 명쾌한 타건으로 연주하며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연주를 보여 주었다. 건반 하나하나를 누를 때마다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가는 소리에 그 어떤 망설임도 없는 확신에 찬 천재의 명쾌함이 담겨 있었다. 2악장의 서정적인 느린 부분이 지나고 빠른 프레스티시모에서는 싱그러운 탄력과 짝 찬 소리의 질감이 느껴졌다. 3악장에서는 서정성과 드라마틱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는데 관객들의 몰입도가 가장 높았던 순간이었다.

최수열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단호하고 명확한 연주로 박종화의 연주 스타일에 높은 싱크로율을 보였다. 2악장은 특히 잘 정제된 소리의 향연이었으며 음정이나 밸런스 면에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연주를 들려주었다. 박종화는 화려함으로 관객들을 매혹시키기보다는 과감함과 호탕함 가득한 카리스마로 자연스럽게 음악적 의도에 공감하게 하면서 그의 호흡과 함께하도록 이끄는 힘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부산시립교향악단은 피아노의 카리스마를 잘 보듬어 안으며 훌륭한 하모니를 관객들에게 선사하였다. 후반부 첫 곡으로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서곡’을 연주했다. 꼬

여 있는 실타래는 눈과 손에 힘을 주어 해결하려 할수록 잘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힘을 빼고 차분하게 접근할 때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필자는 마술피리를 들으며 지휘자 최수열이 만들고자 하는 음악이 바로 그런 간결하고 꾸밈없는 그리고 담백하게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휘에서도 자연스러움을 강조했는데 지휘자가 만들려고 하는 음악으로 끌고 가기 보다는 음악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여유롭게 지켜보며 함께 하는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적 환상곡 ‘그림자 없는 여인’이 연주되었다. 1919년 초연된 이 작품은 전쟁의 잔혹함을 이겨 내려는 희망이 강렬한 에너지로 전해지는 작품으로 각 악기 군별로 철저하게 개성있는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마치 음악 소리만으로 작품 속 이야기처럼 온갖 신기한 존재들이 살고 있는 마법의 세계를 엿보는 듯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각 악기군이 가진 성격을 정확하게 음향으로 만들어내어 마치 악기 하나하나가 미지의 존재가 되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음색이나 밸런스에서도 군더더기 없이 균형 잡힌 연주로 관객들을 상상의 세상 속으로 끌어 들였다. 마지막 소리가 고요 속으로 스며들자 감동에 흠뻑 취한 관객들의 박수가 뜨겁게 쏟아졌다. ‘그림자 없는 여인’을 감상하며 필자는 끊임없이 음악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정상급의 연주를 보여주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가장 특화된 레퍼토리를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석과 기량의 면에서 좋은 연주를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가진 음향적 특징이 슈트라우스의 교향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이어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프로그램에서 또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 한껏 기대되는 연주였다.

부산시립-강원도립극단 교류공연 ‘메밀꽃 필 무렵’ ‘메밀꽃 필 무렵’의 변신



◆ 허은 연극평론가. 전 경성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평창동계올림픽이 9일 개막되었다. 바로 그 전날 저녁, 부산시민회관 중극장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뜻깊은 연극 공연이 있었다. 바로 강원도립극단의 ‘메밀꽃 필 무렵’이었다. 무료공연인 탓인지 근래에 드물게 극장은 관객으로 넘쳐났고 호응 역시 뜨거웠다. 이효석 원작 소설을 연극으로 만든 이 작품은 원래의 소설이 가진 유명세로 많은 사람의 기대를 모았기 때문에 아마도 평소에 극장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도 호기심으로 극장을 찾았던 것으로도 생각되고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의 성격을 관객을 극장으로 이끈 또 하나의 힘이 된 듯 싶다. 어찌 되었든 늘 한적한 연극공연장을 보다가 오랜만에 연극이 관객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모습을 보아서 즐거웠다.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지독히도 서정적인 작품이며 작가의 묘사 하나하나가 독자들에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아련하게 눈앞에 전개되도록 만든다. 소설을 읽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실제 한 장면 속에 자신이 서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상황의 뛰어난 묘사는 이 작품이 한국 소설의 대표작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배경묘사와 문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한편, 연극으로 각색된 ‘메밀꽃 필 무렵’ 역시 이 소설의 기본적 구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각색자는 이 작품을 모두 5개의 에피소드로 나누고 각 장면이 나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연출은 가급적 주제를 살리면서도 형식에서는 상당한 파격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떠돌이 장돌뱅이의 애환을 통한 애잔한 사랑 이야기를 다양한 무대 표현 양식을 통해 자칫 정적인 분위기로 흐를 작품의 흐름을 흥겨움으로 치환시키면서 문학성에만 얽매인 작품이 아닌 공연성을 획득하기 위해 한국적 혹은 동양적 연극 표현양식을 빌렸다. 프로시니엄 아치의 기본적 형식에 가미된 마당놀이적 공연 성격은

관객이 수시로 무대와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였고 수시로 변환되는 무대 장치는 소설의 정적인 정서를 동적인 형태로 변환시키면서 관객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주었다. 그 시각적 즐거움은 의상이나 조명의 정밀한 계산과 장면 전환 타이밍의 적절함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획되고 수정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 초연부터 현재까지의 공연을 모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정과 보완의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16년부터 공연이 시작되어 순회공연, 재공연이 있었다는 팸플릿의 공연보를 참고해 보았을 때 공연이 일회성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수정 보완되어 장기적 공연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는 일반론이 증명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 작품이 모두 장점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과도한 형식미를 추구한 나머지 재미는 얻었지만, 이효석의 문학 작품이 가진 원래의 낭만적 분위기나 정서가 축소되어 이효석의 문학세계와 연관지어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일부분 실망을 주기도 했다. 또, 전반부 흐름에서 축하공연의 분위기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작품과 관계없는 일부 대사의 삽입은 순간 관객의 집중을 흐리게 했다. 봉평 장날에서부터 늙은 당나귀의 사랑을 거쳐 충주집의 에피소드에 이르기까지는 극 전체의 흐름과 비교해서 너무 길고, 재미와 흥겨움에 치우친 나머지 축제성은 살았으나 작품의 진중함은 약화되어 버린 느낌이 있었다.

제5장의 사랑에 대한 허생원의 메시지 역시 무리하게 올림픽과 연관되어 보이는 것은 메시지가 반드시 표면화되어야 한다는 축제 축하공연의 일반론이 원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평창, 강원도, 그리고 경축의 의미를 가슴에 새길 수 있었던 공연이었던 것만은 부정하지 못한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일 시 2018년 1월 1일(월)~4월 8일(일) 전시실
입장료 성인(만 19세~64세) 1만 3천원
청소년(중·고교생) 1만 1천원
어린이(48개월~초등학교) 9천원
45개월 미만 무료(증빙서류 지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070-7542-8531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 '라이프 사진전'. 그동안 국내 전시에서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130여 점을 엄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부터 평범한 일상에서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지

난 세기의 역동성을 생생히 전한다. 전시는 20세기를 바라보는 20가지 이야기가 담겨있는 'This is LIFE', 하나의 스타일이 되어버린 상징적인 인물과 사건을 나란히 배치한 'Icon', 오로지 20세기에 탄생한 물건과 현상에 대한 오마주를 담은 '20th Century Life' 그리고 사진집 '라이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시선을 보여주는 마지막 섹션 'Hope' 등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9회 꿈꾸는 사람들의 음악회

일 시 3월 1일 목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 의 최원갑 010-2576-1097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에서 8년 동안 솔리스트로 활동한 테너 김신환 선생의 발성적 연구와 보존,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김신환 성악연구회의 9번째 정기연주회. 매년 마스터 클래스와 발성세미나 등 음악적 기량 향상에 힘쓰는 한편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는 김신환 성악연구회는 이번 무대에서 한국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다양한 파트와 음색으로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민인기 지휘자 초청연주회 '꽃, 그리고 사랑'

일 시 3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민인기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꽃, 그리고 사랑'.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을 맞아 신춘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정확한 해설과 풍부한 감성으로 울리는 이

시대 최고의 마에스트로 민인기의 지휘로 '꽃,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한국 합창음악에서부터 영국 작곡가 더글러스 쿤스 'MASS in 1991', 현대 합창곡, 영화 OST 등 희망찬 새봄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섬세하고 세련된 합창음악, 깔끔하고 정확한 바톤테크닉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휘자 민인기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제4회 대한민국 신인 음악제 황준영 피아노 독주회

일 시 3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예음클래스 02-6203-7203



국내외 젊은 연주자들을 발굴, 다양한 무대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예음클래스가 마련해온 제4회 대한민국 신인 음악제 '황준영 피아노 독주회'.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기악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피아니스트 황준영은 예음SEA 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전체 1위, 한국음악교육협회 콩쿠르 1위,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 1위, 서울음악콩쿠르 1위, 서울바로크 합주단 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2017 대한민국 신인 음악제 최우수 신인 아티스트, 부산마루 국제음악제 라이징스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8번 단단조 작품 13 '비창'
쇼팽/발라드 제2번 비장조 작품 38
슈만/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8회 정기연주회 봄이 오는 소리

일 시 3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새봄의 따뜻한 기운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8회 정기연주회.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고 '2018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협연자 실기전형'에서 최종 합격한 부산 출신의 젊은 클라

리네티스트 이환석이 현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원곡으로 널리 알려진 멘델스존의 '봄노래'를 시작으로, 감미롭고 아름다운 클라리넷 특유의 연주 테크닉과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춤과 축제를 연상시키는 에너지 넘치고 다이내믹한 리듬이 돋보이는 베토벤 교향곡 제7번으로 활기찬 새봄의 기운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 지휘/최수열 ● 협연/이환석(클라리넷)

UKO 오케스트라 제42회 사랑나눔음악회

일 시 3월 10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UKO 오케스트라 010-8011-9313,
010-3863-3087



지난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환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부산 최초의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인 유니타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nited Korean Orchestra, UKO)가 마련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들과 전문 연주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UKO는 그동안 환자들과 환자 가족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음악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200여 명의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해왔다.

● 지휘/박승 ● 테너/하석배
● 소프라노/강혜정 ● 바이올린/산산준
● 첼로/Jaroslav Domzal ● 피아노/Oleg Shilin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그의 슈베르트, 슈베르트 서거 190년 기념

일 시 3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게리히로부터 '심장을 치는 황금손'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피아니스트 임동혁 리사이틀. 1996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2위에 입상하면서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임동혁은 2000년 부조니 콩쿠르와 하마사스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이듬해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1위 수상과 더불어 솔로 리사이틀 상, 오케스트라 상, 프랑스 작곡가 해석 상, 파리에 음악 학생 상, 마담 가비파스키에 상 등 5개상을 휩쓸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2003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편파 판정에 불복, 수상을 거부하며 전 세계 클래식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임동혁은 2005년 제15회 국제 쇼팽 콩쿠르 3위, 2007년 제13회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피아노 부문 1위 없는

공동 4위를 수상하며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임동혁은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EMI클래식에서 데뷔 음반을 출시. 이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종 상'을 수상한 데 이어 그의 두 번째 음반 역시 프랑스의 '쇼크 상'을 수상하며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동안 뉴욕 링컨 센터,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 살 플레엘,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도쿄 산토리 홀 등 전 세계 주요 공연장과 베르비에 페스티벌, 루르 페스티벌, 쇼팽 페스티벌, 몽펠리에 페스티벌, 루가노 페스티벌 등 유수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명성을 쌓아왔던 임동혁은 사를 뒤투이가 지휘한 NHK 오케스트라, 정명훈이 이끄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유리 테미르카노프의 샹테페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한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이르지 벨로홀라벡 지휘의 BBC 심포니, 마이클 틸슨 토마스 지휘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등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도 협연해오고 있다. 임동혁은 현재 독일에 거주하며 유럽,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깊어진 감성으로 돌아온 임동혁은 이번 무대에서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을 맞아 슈베르트의 넘치도록 아름다운 즉흥곡 작품 142 전곡과 후기 피아노 소나타 중 마지막 곡으로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 제2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4개의 즉흥곡 D.935
슈베르트/피아노 소나타 제2번 D.96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전곡 연주회 '거장, 거장을 만나다'

일 시 3월 14일-15일 수-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5개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이동신의 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대학교 주희성 교수, 독일 베를린음대 파스칼 드바이용 교수, 인제대학교 노경원 교수, 연세대학교 김영호 교수,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 이마주 교수가 협연자로 출연. 화려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베토벤 피아니즘의 정수를 선보인다.

14일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1번(협연/주희성)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2번(협연/파스칼 드바이용)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3번(협연/노경원)
15일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4번(협연/김영호)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5번(협연/이마주)
● 지휘/이동신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재)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일 시 3월 16일(금)-5월 31일(목) 오전 11:00
(월요일 공연 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미만 입장 불가, SNS 공유 50%, 도서기부, 4인 가족 이상 6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제4회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아동청소년부문에서 아시테지상을 수상한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어린이전용극장 두 번째 작품으로 선보이는 '뚝딱하니 어흥!'은 '호랑이와 꽃길', '호랑이 형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 3가지 전래동화를 소재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한편 극 중 교훈을 통해 용기와 협력, 용서와 관용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친다. 특히 어린이 관객들은 직접 만든 도깨비 방망이를 통해 나쁜 호랑이를 벌주기도 하며 위기에 처한 오누이를 도와주는 등 배우들과 함께 극을 이끌어 나간다.

부산노화여전도회 연합합창단 정기연주회 봄의 찬미

일 시 3월 17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노화여전도회 연합합창단 010-3880-8659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노화여전도회 연합합창단 정기연주회.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봄의 찬미'라는 테마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정기화 지휘, 목사총창단, 앙상블 alex project 특별출연으로 성가 및 가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연합합창단/은혜 아니면, Remember Me, 은혜의 주님 목사총창단/주 날 인도해, 찬송가 메들리
연합합창단/남촌, 오솔길에서, 내 맘의 강물
앙상블 alex project/제즈모음곡 제2번 '왈츠(소스타 코비치 곡), 하나님의 은혜
연합합창단/호산나 호산나, You Raise Me Up,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 지휘/정기화 ● 반주/김화주

신정운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3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독일 하이델베르크 만하임 국립음대를 최연소 입학 및 수료한 후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디플롬 과정 및 동대학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신정운 독주회.

독일 유학시절 각종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음악적 기반을 튼튼히 쌓아온 신정운은 그동안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열린 '베토벤 32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에 참가,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신정운은 현재 고신대학교 초빙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부조니/샤콘느
이신우/코랄판타지 제3번 '알렐루야'
리스트/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연습곡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5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風流, 봄을 노래하다'

일 시 3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전해 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風流, 봄을 노래하다'.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수자 이동영,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 하윤주,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인 생활주자 김효영,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온 장구주자 민영치, 이현철이 출연, 부산 초연곡인 창작 국악관현악에서부터 정가, 생황협주곡, 설장구 협주곡 등 새봄의 흥취에 어울리는 신명나는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원일/국악관현악 '대취타 易'[부산 초연]
이정호/정가를 위한 국악관현악 '별한[부산 초연]
이지수/국악관현악 '아리랑 랩소디'[부산 초연]
이준호/생황협주곡 '바람의 섬'
김선제/아름다운 인생 II[부산 초연]
민영치/국악관현악을 위한 설장구 협주곡 '신기'[부산 초연]

피아니스트 김희재 독주회

일 시 3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성의 소유자 피아니스트 김희재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희재는 2017년 7월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의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객원교수이자 서울대학교, 부산예중, 부산예고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1번 작품 110
리스트/바흐 주제에 의한 환타지와 푸가
바흐/영국모음곡 제6번 BWV 811

반세기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리즈 국제 피아노콩쿠르 2위 및 오케스트라 특별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피아노콩쿠르 2위, 산마리노 콩쿠르 3위, 스페인 마리아 카날스 콩쿠르 3위, 서울 국제음악콩쿠르 파이널 리스트 등 빛나는 음악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제2회 키즈 웰컴 콘서트

일 시 3월 23일 금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임산부, 영유아 동반 시 1천원)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엄마와 함께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음악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제2회 키즈 웰컴 콘서트'. 지난해 영유아 동반 클래식 콘서트로 큰 사랑을 받았던 키즈 웰컴 콘서트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떠돌고 뛰어놀며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어린이들에게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함께 온 부모에게는 육아로 지친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풀 수 있는 힐링 시간을 제공한다.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EBS '한글기차 치포에서 악당' '쿠앙'으로 열연하고 있는 개그맨 김기욱의 귀에 쏙 들어오는 해설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들던 익숙한 음악이 한 편의 동화로 펼쳐진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프로코피예프/피터와 늑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VI '운명'

일 시 3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금년새 지휘,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9개의 베토벤 교향곡 중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고 있는 교향곡 제5번 '운명'과 노르웨이풍의 서정적 리스트풍의 화려한 연주가 어우러지는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16'을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피터 오브차로프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그리고/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16
베토벤/교향곡 제5번 가단조 작품 67 '운명'
● 지휘/금년새 ● 협연/피터 오브차로프(피아노)
● 연주/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3 오페라 이야기 I

일 시 3월 28일 수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 한 해 (재)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2018년 첫 무대.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의 깊이 있는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첫 무대에서는 춘천시립교향악단, 팬아시아필하모니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는 이종진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소프라노 양재경, 조윤정, 테너 전병호, 바리톤 김은곤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의 서곡 및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나비야 다시는 날지 못하리',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로시니/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 '방금 들린 그대의 음성' 등

아카펠라 제니스 초청 콘서트

일 시 3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부산문화 1600-1803



에릭킴(베이스), 애나(소프라노), 김민구(테너), 김세화(알토), 연구환(바리톤) 등 혼성 5인조로 구성된 아카펠라 제니스 초청콘서트. 지난 2008년에 결성, 2012년 첫 EP음반인 '자이언트 트리'로 공식 데뷔한 아카펠라 제니스는 2014년 '대만 국제아카펠라대회' 아시아 최고 우승, 2015년 '유럽 국제아카펠라대회' 한국인 최고 우승(팝부문)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그들의 유럽 도전기는 영화 '자이언트 트리'로 제작되어 지난해 9월, 춘천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다.

SBS '런닝맨', M.net '방승의 적', SBS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등 TV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도 한 아카펠라 제니스는 그동안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팝, 재즈, 가요, 동요, 만화영화주제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왔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7회 정기연주회 Symphony No. 5—III

일 시 3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 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7

지난해부터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작곡가들의 5번 교향곡을 선정, 바로크에서부터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선보여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Symphony No. 5' 세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 초를 전후해 영국 음악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허버트 파리의 숨은 명곡 '교향곡 제5번'을 한국 초연으로 들려주며, 현재 프랑스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과 프랑스 파리고등음악원 교수인 에릭-마리아 쿠투리에(Eric-Maria Couturier)가 함께하는 브람스 '더블 콘체르토' 그리고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아리아를 테너 문한솔, 바리톤 이정근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번스타인/캔디드 서곡
도니제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여러분'
도니제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 몰래 흘리는 눈물'
브람스/바이올린과 첼로의 이중 협주곡
페리/교향곡 제5번 나단조 등

- 지휘/김봉미
- 바이올린/김재원
- 테너/문한솔
- 바리톤/이정근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익스트림 댄스 코미디 브레이크 아웃

일 시 3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31일-4월 1일 토-일요일 오후 200, 600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비보이들의 현란하고 신나는 익스트림 댄스와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제작된 익스트림 댄스 코미디 '브레이크 아웃'. 지난 2007년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비보이 댄서들의 현란한 춤을 기반으로 탄생된 '브레이크 아웃'은 자유를 향한 좌충우돌 죄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탈옥기가 K-Dance와 함께 펼쳐진다. 특히 제작 초기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해 제작된 '브레이크 아웃'은 지난 2007년 세계 공연의 중심부인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 박스 오피스 No.1과 Cavalcade Best Walking Group을 수상했으며, 2008년에는 뉴욕 오프브로드웨이에서 장기공연으로 올려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8 노자와 베토벤 고주망태(孤酒忘態)_1.고(孤)

일 시 3월 31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철학과 클래식 만남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노자와 베토벤' 2018년 무대. 2017년 '희로애락(喜怒哀樂)'에 이어 올해 새롭게 만나는 주제는 '고주망태(孤酒忘態)'. '술에 취해 정신을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단어 '고주망태'를 '외로워서(孤) 술(酒) 한 잔 하고, 잊고(忘) 싶으나 결국 자신이 택한 마지막 태도(態)는 무엇인지'를 묻는 새로운 해석으로,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감과 위로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우리 시대의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고(孤)'라는 주제로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철학과 이론을 최진석 교수와 함께 풀어본다.

- 협연/양경아(바이올린)

장영희 귀국 오보에 리사이틀

일 시 3월 31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연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도독, 만하임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음악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오보에리스트 장영희 귀국 독주회.

일찍이 오보에에 두각을 나타냈던 장영희는 2009년 부산음악콩쿠르(MBC) 1위, 2011년 해외파견콩쿠르 2, 3위 없는 단독 1위, 2015년 마스트리히트 뮤직페스티벌 청중상 수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밤베르그 썬머 오페라의 오보에 제1수석으로 무대에 서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연세신포니에타 초청 유망 신세대 초청 시리즈를 비롯해 가람아트홀 독주회, 음악춘추 초청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다수 오케스트라의 객원연주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객원출연/류찬비(피아노), 배정운(바이올린), 정승원(비올라), 이경진(첼로)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정경화 초청 리사이틀

일 시 4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이번 무대에서는 평창국제음악제에서 처음 만난 후 지난 7년간 끊임없이 호흡을 맞추며 최고 경지의 듀오 음악을 선보여온 정경화의 음악적 동지 케빈 케너와 함께한다.

프로그램

포레/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작품 13
브람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라단조 작품 108
프랑크/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

'바이올린의 여제' 정경화 초청 리사이틀. 지난해 데뷔 50주년을 맞아 뉴욕 카네기홀과 런던 바비칸 센터에서 기념 독주회를 가졌던 정경화는 지난 2007년부터 모교인 줄리어드 음악원 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음식으로 맛보는 합창

일 시 4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지휘/전진(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3115~6111

'음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창작곡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의 커피 CM송으로 유명한 '칸타타 BWV 21'을 비롯해 우리의 미각과 행복, 건강까지 책임지는 음식을 주제로 한 다양하고도 재미있는 합창곡들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커피칸타타'라고도 불리는 '칸타타 BWV 21'은 18세기 당시 커피 유행을 타고 커피하우스에서 연주된 세속칸타타로, 마치 작은 희극오페라를 공연하듯 진행되며 풍자와 익살로 가득해 웃음을 자아낸다.

프로그램

바흐/칸타타 BWV 21
요즘 생각나는 어릴 때 먹던 그 음식(합창)/국수나 한 그릇 하러 가세, 중화반점, 어머니와 고등어 때론 우아하게(여성중창)/외인과 매너, 뽕판 막걸리에 반한 나(남성중창)/꽃게, 막걸리송
분식점에서 듣던 그 노래(합창)/팔방수, 김밥, 카레

음악 | Music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부산대학교 콘브리오 오케스트라
창단 10회 기념연주회 **운명**

일 시 3월 3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콘브리오 오케스트라 010-4455-2792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부산대학교 재학생 45명으로 구성된 부산대학교 콘브리오 오케스트라(지휘 정운봉) 창단 10회 기념연주회.

항상 생기있게 음악을 즐기려는 단원들의 마음을 담아 '생기있게'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콘브리오(Con brío)'에서 그 이름을 가져온 콘브리오 오케스트라는 2012년 11월 창단한 후 그 이듬해인 2013년 3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 학기 정기연주회를 가져왔으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 교류회, 국제마루음악제 콘서트, 부산시 프로젝트 초청공연, 열대야 페스티벌 초청공연, 아마추어 교향악축제, 금정산성 문화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베르디/‘운명의 힘’ 서곡
엘가/사랑의 인사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등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신명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자당
입장료 A석 1만원, B석 8천원(만 18세 이하는 무료관람)
문의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매주 토요일,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신명 ‘행복한 국악나무’.

3일 창작으로 미래의 전통을 만들다
실내악 ‘다섯악기’를 위한 저녁노래V, 부채춤, 거문고중주 ‘일출’, 창작판소리

리 ‘제비노정기’, 가야금독주 ‘침향부’, 꽃나부 풍장놀이
10일 민속마당의 신명과 기원
대취타, 봉장취, 진쇠춤, 남도민요, 입춤, 소고춤
17일 국악관현악과 놀아보자
관현악 ‘아리랑연곡’, 정가협주곡 ‘편락, 태평가, 아쟁협주곡 ‘건너고 건너고 또다시 건너고’, 대금협주곡 ‘영원’, 관현악 ‘춤추는 바다’
24일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악 ‘전폐희문, 영관’, 판소리, 처용무, 아리랑, 강강술래, 농악(사물놀이)

GRE 기타 앙상블 콘서트

일 시 3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올림아트 010-7540-1652



솔리스트로서도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기타리스트 박종호, 배광수, 이진하, 이노영으로 구성된 GRE 기타 앙상블의 첫 무대.

기타(Guitar)의 르네상스(Renaissance)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GRE 기타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무곡’이라는 테마로,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의 하룻밤’을 시작으로 엘가 ‘세비아나(스페인 전경)’, 생상의 ‘죽음의 무도’, 보로딘 ‘폴로베츠인의 춤’, 세르지오 아사드 ‘우아레케나’ 등 다채로운 기타 테크닉과 앙상블을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들려준다.

GRE 기타 앙상블은 이번 무대를 통해 네 대의 기타가 표현하는 역동적이고 화려한 무곡의 세계로 관객들을 이끈다.

무지크바움 개관 6주년 기념
음악회 & 클로드 드뷔시 서거 100주년 기념
해설이 있는 음악회 **‘Claude Debussy 그의 삶, 그의 음악’**

일 시 3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 그의 삶과 음악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Claude Debussy 그의 삶, 그의 음악’.

무지크바움 개관 6주년 기념 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유학 출신의 피아니스트 유혜진,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색소피니스트 우다연이 드뷔시의 대표곡인 베르가마스크 조곡, 피아노 삼중주, 발라드, 판화 등을 통해 인상주의 음악이 어떻게 음악사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알아본다.



제10회 에코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3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에코 플루트 앙상블 010-4592-8868

아너스 플루트 오케스트라 음악부감독, 부산플루트 유스 앙상블 음악부감독, 부산 플루트 앙상블 단원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조진학을 음악감독으로 가장 청소년 오케스트라 트레이너인 유은미, 부산플루트 앙상블 단원, 부산로얄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김하나, 신현이, 나유진으로 구성된 에코 플루트 앙상블의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에코 플루트 앙상블 상임지휘자로 있는 호르니스트 백성훈의 협연으로 E. Kohler, M. Berthomieu, R. Gliere, C. Dancal, P. M. Dubois, N. Paganini 등의 작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E. Kohler/Blumenwalzer 작품 87
M. Berthomieu/Chats, 5 Pictures
R. Gliere/Horn concerto 내림나장조 작품 91
C. Dancal/Ah! Vou dirai-je, Maman 등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금정구 개청 30주년 기념 **신춘콘서트**

일 시 3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금정구민 30%, 20인 이상 단체 20% 할인)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금정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금정문화회관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 ‘신춘콘서트’.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방성호가 이끄는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고유 의 가락과 가요의 애잔한 정서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뛰어난 가창력과 독특한 창법으로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장사익과 ‘국악소녀’로 어린시절부터 뛰어난 실력과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송소희가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에서부터 뮤지컬넘버 메들리, 민요, 국악가요, 가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지휘/방성호 ● 노래/장사익 ● 국악/송소희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4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7일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 기념 '김은희, 정혜은 피아노 듀오 연주회'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독일 예센 폴크방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마틴루터대학교 석사과정,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 예술아카데미연구회 부회장, 부산음악협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부산듀오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김은희와 한양대학교 피아노과와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석사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부산듀오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정혜은이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슈베르트 음악의 밤.

21일 부산현대음악앙상블 정기연주회
부산지역 현대음악의 활성화와 수준높은 연주를 목표로 지난 2008년 작곡가 이규봉을 음악감독으로 젊은 전문연주자 중심으로 창단한 부산현대음악앙상블 정기연주회.



● 연주/고아라(바이올린), 광대희(첼로), 김진희(피아노), 장예지(플루트), 황남용(클라리넷)

28일 국악+양악 'TWO+GETHER'



국악팩토리/거문고&탱고
피아졸라/Suit Del Angel
양방언/프론티어

● 연주/김민지(드럼), 박은정(피아노), 하은영(바이올린), 김명희(거문고), 장경미(가야금)
● Special Guest/김영민(기타), 한임철(베이스기타)

부산현대음악앙상블은 그동안 영남국제음악제, 대구 현대음악제, 향신회 작곡 발표회, 서울음악제,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경상작곡가협회 발표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현대음악 장르를 탁월하게 해석하며 호평과 주목을 받아왔다.

바이올리니스트 하은영, 피아니스트 박은정, 드럼주자 김민지, 가야금주자 장경미, 거문고주자 김명희가 들려주는 클래식과 국악의 만남.

프로그램

김용실/출강
박유철/동해지곡
두 번째 달/얼음연못

유혜진 피아노 귀국 독주회

일 시 3월 10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유혜진 010-2224-2662



울산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하던 중 도볼, 뽀와시 음악원 Supérieur 과정,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젠느빌리에(Gennevilliers)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말메종 국립음악원 피아노반주과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유혜진은 유학시절 유럽의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교류하며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를 통해 음악적 세계를 넓혀왔다.

유혜진은 부산 반주연구회, 울산피아노아카데미 멤버로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부산에 살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토카타 마단조 BWV 914
바흐-부조니/사콘느 라단조 BWV 1004
드뷔시/발라드 L. 70, 가면 L. 105, 판화 L. 100

2018 젊은 연주가 시리즈 신인을 주목하라

일 시 3월 12일-16일 월-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부산, 경남지역 대학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있는 차세대 젊은 연주자들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

12일(월) 성악

● 출연/하동훈(동아대), 천예인(신라대), 백예훈(동의대), 김찬미(고신대), 이혜인(경성대)

13일(화) 피아노

● 출연/정원진(창신대), 최서희(부산대), 변소연(동의대), 정혜지(고신대), 봉다슬(경성대), 김유리(울산대)

14일(수) 피아노

● 출연/장보연(경남대), 서보름(인제대), 구보라(창원대), 김호정(신라대), 류지수(동아대)

15일(목) 관악/타악

● 출연/이은희(인제대), 신민기(경남대), 박찬식(경성대), 이지민(인제대), 김광열(신라대), 윤혜영(동아대)

16일(금) 현악/작곡

● 출연/심수정(부산대), 차성운(동아대), 신성호(신라대), 김소희(경남대), 인지해(경성대), 박철연(고신대), 서민성(신라대)

위로 네 스폰 세 번째 이야기

일 시 3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신문정 010-5575-1524

김민정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이스트만 음악학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마스터클래스 및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썸머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다수 독주회 및 협연무대 등에 서왔다. 정영주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Sidney Wright Accompanying Competition에서 2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문정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썸머아카데미를 졸업하고 Japan International Duo Competition에서 입선한 바 있다. 박주영은 영남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 K동방송 '박주영의 힐링이 있는 아침'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일 시 3월 17일 토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010-6432-0821

지난 2002년 대학교수, 의사, 감정평가사, 교사, 군인, 학원강사,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음악 동호인들로 출발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지휘 윤상운) 정기연주회.

그리스어로 '선율'이란 뜻을 담은 멜로소오케스트라는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초청연주, 한국공인회계사 정기총회 초청연주, 해운대 한화리조트 초청연주, 금정수요음악회, 울산 아가페 합창단 정기연주회, 환우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야외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위드스트링앙상블 제10회 특별연주회

일 시 3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위드스트링앙상블 010-7565-0280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연주자들로 결성된 위드스트링앙상블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지역의 실내악 음악의 활성화와 클래식 음악의 보급을 위해 지난 2008년 결성된 위드스트링앙상블은 그해 금정수요음악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나오고 있다.

- 지휘/김성원(위드스트링앙상블 리더)
- 협연/첼리스트 최정윤



더 블로섬 아홉 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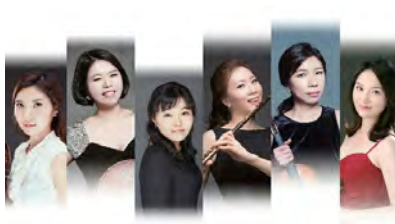
일 시 3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문의 더 블로섬 010-3284-9428

피아니스트 심하정, 플루티스트 김윤희, 바이올리니스트 정다희, 안은지, 비올리스트 김가민, 첼리스트 김나래 등 부산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섯 명의 여성 연주자로 구성된 더 블로섬의 9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4년 창단된 후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온 더 블로섬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 시립교향악단 수석 오보이스트 조정현과 함께 '오보에, 플루트, 피아노, '오보에, 플루트, 현악 3중주', '플루트, 현악 4중주' 등 부산에서 거의 연주되지 않는 특별한 편성의 무대를 선보인다.



(사)선사인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3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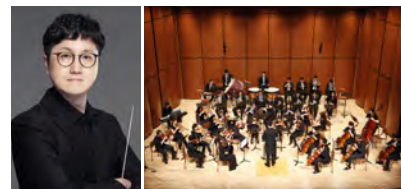
입장료 초대

문의 (사)선사인오케스트라 010-5660-3919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구성된 (사)선사인오케스트라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세대를 초월해 음악으로 소통해온 (사)선사인오케스트라는 지난 2015년 창단, 이듬해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는 선사인오케스트라가 올해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갖는 첫 번째 정기연주회로, 앙상블 '클라삭으로' 음악감독,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리더로 있는 지휘자 원준연의 지휘로 밝고 아름다운 왈츠로 관객들과 만난다.



연극 | Play

부산트리오 '보헤미안 랍소디'

일 시 3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트리오 890-1318, 010-3325-8729

지난 1962년 창단된 후 현재 세대를 이어 국내 최장수 피아노 트리오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트리오 '보헤미안 랍소디'.

피아니스트 권준,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첼리스트 이일세가 그 명성을 잇고 있는 부산트리오는 이번 무대에서 체코의 대표적인 작곡가 드보르작의 가장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곡인 '동키'를 비롯해 부산에서는 연주된 적이 없는, 드보르작의 애제자이자 훗날 사위가 된 요셉 수크의 피아노 트리오, 엘레지를 통해 체코의 독특한 민족주의적 향기를 선사한다.



소프라노 최햇살 귀국 독창회

일 시 3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김미희 010-4506-8368



풍부한 표현력과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로, 늘 노력하는 모습으로 깊은 감동을 전해주는 소프라노 최햇살 귀국 독창회. 인제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로 유학, A.Vivaldi 국립 음악원 최고음악교육과정(Corso Biennio), 밀라노 시립음악원 보컬코치과정, Accademia Donizetti 합창지휘 전문연주자과정(Triennale)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며 연주자로서의 기반을 다진 최햇살은 이탈리아 'Terre dei Fieschi' 국제콩쿠르 특별상, 'cinque terre(monterosso)' 국제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이탈리아 Borgolavezzaro시 주관 오페라 '라보엠' 주역을 비롯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에 오르는 음악적 기량을 인정받았다.

김햇살은 이번 무대에서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풍부한 감수성과 감각적인 연주를 들려준다.

- 피아노/김장미

연극 '고양이라서 괜찮아'

일 시 1월 4(일)~3월 11(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2:30, 5:00, 7: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15세 이하 입장불가,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혼자 살고 있는 남자, 고양이는 그의 방에 종종 찾아오는 여자친구 서연이가 어느 날 데려온 암컷 고양이 '도도'를 만나게 된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영민은 어떻게 이 도도와 동거를 시작하고 어느 순간 섹시한 여자로 변신한 도도에 반해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도도는 영민의 여자친구 서연이 찾아오면 다시 고양이로 변신하고 영민은 그런 도도와 서연 사이에서 고민하는데...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한 고양이와의 야릇한 로맨스를 다룬 연극 '고양이라서 괜찮아'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고양이의 시각에서 친구인 인간을 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코믹연극 '택시 안에서'

일 시 1월 5일(금)~4월 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4:00(2/14일 오후 4:00, 7:00, 2/15일 오후 3:00, 6:00, 2/16일 공연 없음, 2/17일 오후 4:00, 7:00, 2/18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 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극단 바라 1600-1716



친구와 게임을 너무나 좋아해서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해 본 하영, 만나는 사람마다 동차여서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 소희,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시작되는 운명 같은 만남으로 불같은 사랑을 시작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지 못하고 두 손을 놓게 된다. 사랑에 상처를 받은 소희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너무나 늦게 사랑을 깨달은 하영은 소희를 잡으려 공항으로 향하는데...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시작되는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 '택시 안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사랑이야기 속에서 재미와 감동 그리고 반전까지, 시간간을 초월한 로맨스 코미디극이다.

연극 '러브 액츄얼리'

일 시 2월 22일(목)~3월 18일(일)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주)플레이더부산 1600-0316



100일 커플, 1000일 커플, 10년 커플을 통해 만남의 기간에 따라 변화는 연인 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그려낸 연극 '러브 액츄얼리'.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들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러브 액츄얼리'는 사랑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들, 오해로 인한 다툼, 화해의 어려움이 연속되는 이 시대의 복잡한 사랑에 관한 설명서 같은 작품으로, 쉽게 연애하고 쉽게 헤어지는 요즘 우리네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990년대 마로니에 공원을 배경으로 한 이번 작품은 등장인물의 의상에서부터 무대, 배경음악, 작곡, 소품들 하나까지 관객들을 1990년대 아련한 추억 속으로 이끈다.

● 작, 연출/이민혁

극단 새벽 창작부조리극 옥탑방 두 여자

일 시 3월 8일(목)~5월 19일(토) 매주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수요일 공연 없음, 3/28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8:00 공연 추가) 호로민락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 5천원(17세 이상 관람)

문 의 극단 새벽 245-5919



지난해 11월 초연무대를 통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낯설고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연극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극단 새벽 '옥탑방 두 여자'.

'삶의 연극화, 역사의 연극화'를 모토로 연극인

공동체 극단 새벽을 창단하고 지난 34년간 관객들과 부대끼며 달려온 연출가 이성민이 세상과 연극작업에 대해 품은 회의감에서 출발, 창작한 '옥탑방 두 여자'는 두 연극배우의 하루에 빚대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허무감과 무의미함을 마주하는 한편, 세상의 변화와 역사의 진보를 꿈꾸는 사회과학적 담론이 무의미해진 시대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담아내는 철학적 연극이다.

● 작, 연출/이성민 ● 출연/유미희, 변현주

어린이뮤지컬

터닝메카드R-최후의 레이스

일 시 3월 1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6만원, R석 5만 5천원, S석 4만원 (인터넷 예매 시 50% 할인)

문 의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메카드'를 찾아 떠나는 모험 이야기를 그린 캐릭터 뮤지컬 '터닝메카드R-최후의 레이스'. 기존 '터닝메카드' 시리즈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던 주요 인기 메카니컬이 RC카로 재탄생되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이번 무대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나친과 친구들은 메카드를 찾기 위한 세계여행을 떠나게 되고 신비의 섬 이스터 아일랜드와 파리 에펠탑, 뉴욕 자유의 여신상, 베이징 만리장성을 거쳐 이집트 피라미드에 도착하게 된다. 과연 이들은 모험을 방해하는 함정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특별한 메카드를 차지할 수 있을까?

수리수리 매직쇼

일 시 3월 1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화려한 마술과 신기한 버블, 신나는 벌룬쇼의 만남, 수리수리 아저씨와 함께하는 '수리수리 매직쇼'. 빼어난 아저씨가 직접 만들어주는 풍선 선물과 함께 시작하는 풍선아트 오프닝쇼에 이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리수리 아저씨의 매직쇼와 비눗방울 세상을 만들어줄 버블쇼까지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관객이 무대 속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무대로, 어린이들은 물론 함께 온 어른들까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뮤지컬 '광화문 연가'

일 시 3월 16일 금요일 오후 8:00, 17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8일 일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세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영훈 작곡가의 명곡들로 완성된 추크박스 뮤지컬 '광화문 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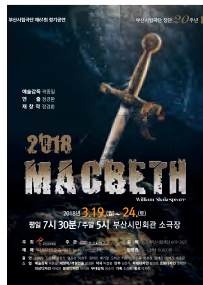
시적인 가사와 함께 서정적인 발라드 음악으로 1980~90년대 대한민국의 '팝발라드' 장르를 개척한 작곡가 이영훈의

추억 속 명곡들과 함께 격변의 시기였던 그 당시,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광화문 연가'는 검증된 연기력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안재욱, 이연경 등 실력파 배우들이 총출동, 추억 속 진실한 사랑을 찾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부산시립극단 제61회 정기공연 부산시립극단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I ‘2018 MACBETH’

일 시 3월 19일(월)~24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2018년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극단이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첫 번째 기념공연 ‘2018 MACBETH(맥베스)’. 극단 자유바다 예술감독으로 있는 정경환의 연출로, 셰익스피어 고전을 현대적으로 조명한 ‘2018 MACBETH(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원작으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재해석, 원작의 인물들을 구체적인 우리 역사속의 유사한 배경적 인물로 변화시켜 인간의 원죄에 대한 대물림, 죄의식을 통한 몰락 등을 한국적인 정서로 새롭게 선보인다.

● 예술감독/감독 ● 재창작, 객원연출/정경환

무 용 | Dance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8 우리 춤 산책

일 시 3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
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우리 춤에 대한 열정과 빼어난 춤 솜씨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2018 우리 춤 산책’.

프로그램

오고무(출연/김주령, 권봉정, 오수연, 윤은하, 김시현·악사/상식 김미란, 장구 허태성, 북 최의옥, 징 이현주)
태평무(강선영류)(출연/이화성)
살풀이춤(한영숙류)(출연/정진희, 전현우)
한량무(출연/장래훈)
원향지무(엄옥자류)(출연/박창희)
살풀이춤(이매방류)(출연/이현숙, 황선희, 김병주)
화조풍월(엄옥자류)(출연/권봉정)
지전춤(출연/김동숙, 장래훈)
소고춤(출연/김시현·악사/팽과리 김미란, 장구 김운호, 북 최의옥, 징 허태성, 나팔 이창규)
설장고놀이(김병섭류)(출연/서정연, 김공주, 이현정, 김진영, 김경미·악사/설장구·상식 김운호, 북 허태성, 징 최의옥, 태평소 한상훈)

어린이뮤지컬 신비아파트-인형뽑기 기계의 비밀

일 시 3월 24일~25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6만원, R석 5만 5천원, S석 4만원
(인터파크 예매 시 50% 할인)
문 의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2016년~2017년 투니버스 시청률 1위에 빛나는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어린이 뮤지컬로 제작한 ‘신비아파트-인형뽑기 기계의 비밀’. 공포를 소재로 한 탄탄한 기획과 흥미진진한 스토리, 개성 강한 캐릭터들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신비아파트’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에피소드에 새로운 재미를 더해 제작된 ‘신비아파트-인형뽑기 기계의 비밀’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에 아이들의 심리와 귀신들의 사연을 더하여 따뜻한 감동과 교훈을 선사한다.

가족뮤지컬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

일 시 3월 3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4월 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온누리 1661-6702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원작으로 한 가족 뮤지컬. 아주 중요한 회사에 다니는 아빠와 아주 중요한 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집안일은 모두 엄마 몫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힘들어하던 엄마는 ‘너희들은 돼지야’라는 쪽지를 남기고 결국 집을 나가버린다. 돌봐 줄 사람이 없어진 아빠와 아이들은 조금씩 이상하게 변하고, 과연 이들은 엄마 없이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을까? 가정에서 엄마가 짊어지고 있는 역할과 희생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유쾌하게 풀어낸 ‘돼지책’은 온가족이 함께 즐기며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다.

국립발레단 ‘지젤’

일 시 3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31일 토요일
오후 3: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문 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대한민국의 발레를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의 ‘지젤’.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과 세계 유명 작품들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는 국립발레단은 특히 지난 2014년,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 활약 중이던 강수진을 예술감독으로 맞아 더욱 다양한 레퍼토리 구축과 발레문화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젤’ 공연은 국립발레단으로는 국내에서 3년 만의 재공연, 부산에는 무려 10년 만에 다시 올리는 반가운 무대로, 사랑, 배신, 분노, 그리고 비탄이라는 감정의 홍수 속에서 튀튀를 입은 율리들의 환상적인 코르 드 발레(corps de ballet·군무)로 클래식 발레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



©Korean National Ballet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8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일 시 4월 3일(화)~13일(금) 오전 11:00(주말 공연
없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1천원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2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부산시립무용단의 눈높이 프로그램 ‘춤추는 동화’ 2018년 무대. 극적인 이야기 구성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춤사위로 풀어내는 ‘춤추는 동화’는 매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안무로 공연 때마다 매진사례를 낳고 있다. 관객인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올해 무대에서는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무대에 옮겨 어린이들과 함께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작은영화콘서트 '시인과 영화로 소통하다'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일 시 3월 20일 화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매월 셋째주 화요일,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부산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인과 영화로 소통하다'. 영화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부산영화인협회 서영조 회장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을 소개하며 관객들이 놓친 장면 속에 숨어 있던 의미와 이미지들을 짚어준다. 3월에는 법조차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극한 상황에 몰린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한국, 2010년, 상영시간 115분, 청소년 관람불가, 장철수 감독, 서영희, 황금희, 황하준 출연)이 상영된다.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일 시 3월 8일(목) 오후 7:30, 13일(화) 오후 8:00, 16일(금) 오후 7:30, 19일(월) 오후 7:30, 26일(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8일(목) 오후 7:30 미술작품으로 보는 인간의 삶 '자연과 인간'
인간의 삶을 비추고 있는 미술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이 시대별로 어떻게 이해되고 미술로 표현되었는지를 알아본다.

● 강사/이은미(뮤지엄 에듀케이터)



13일(화) 오후 8:00 객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27강 '고독한 거인, 브람스의 인생과 작품세계'
시대의 흐름에 초연해 오로지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했던 고독한 거인, 요하네스 브람스의 인생과 작품세계를 탐구한다.

● 강사/곽근수(음악평론가)

16일(금) 오후 7:30 여행, 예술을 만나다 제2강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3월 아카데미

일 시 5일(월), 6일(화), 12일(월), 13일(화), 15일(목), 19일(월), 20일(화), 21일(수), 26일(월), 27일(화)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5일(월) 오후 7:30 일본의 미학(4)·하이쿠(3)
영화 잇사, 차차, 천애의 여자

●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문학평론가,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6일(화) 오후 7:30 시인 윌리엄즈를 매료시킨 초현실주의 화가 히에로니무스보스의 '세속적 쾌락의 정원'

● 강사/심진호(신라대교수)

12일(월) 오후 2:00 색으로 만나는 봄 움직이는 미술, 정지된 영화, 색이 그들의 눈이 되다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전문가)

12일(월) 오후 7:30 객근수의 클래식 투어(17)
카를 오르프 '카르미나부라나'

● 강사/곽근수(음악평론가)

13일(화) 오후 7:30 커트의 미학 '스타일과 정체성'
영화 비탈사순 : 더 무비

● 강사/민요한(민요한헤어대표)

15일(목) 오후 2:00 영화의 고전을 만나는 시간 '영화 속을 걷다'



● 강사/김문홍(문학박사, 연극평론가, 극작가, 부산공연사연구소 소장)

19일(월) 오후 7:30 영화로 만나는 스페인의 예술(1)
영화 세비자나스(감독/카를로스 사우라)

● 강사/정천식(스페인문화연구원)

20일(화) 오후 7:30 예술과 사유 '예술철학자의 순례길'
타키 리카인웨이

● 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내서재대표)

21일(수) 오전 10:30 랜선으로 떠나는 문화산책(2)
'언니, 나의 작은 순애언니'(팟캐스트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

26일(월) 오후 7:30 세계미술축제의 현장
예술로 진화하는 홍콩, 아트바젤홍콩

● 강사/강금주(갤러리이름 대표, 부산화랑협회 회장)

27일(화) 오후 7:30 패션, 영화를 디자인&스타일링하다
● 강사/진경옥(동명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패션디자이너)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봄은 소리를 타고 흐른다.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좋은 음악 & 좋은 만남'은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6일(645회) 현악 실내악의 소리

13일(646회) 목관 실내악의 소리

20일(647회) 금관 실내악의 소리

27일(648회) 이달의 책 읽기 <남아 있는 나날>(가즈오 이시구로, 민음사)

전 시 | Display

김옥균의 클래식 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3:4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월 4만원
문 의 김옥균 010-6367-0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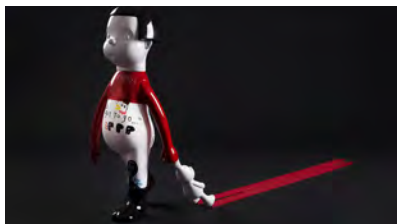
MBC FM 목요일음악감상회를 기획 연출한 김옥균(시인, 음악치료사) 전 MBC PD가 진행하는 클래식 영상음악 해설 감상회.
내 삶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클래식음악을 만나는 시간으로, 최신 해외 클래식음악연주회 실황을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2016 그레페닉 페스티벌 10주년 기념 공연_베토벤 '합창' 등
원헌 필하모닉 2016 BBC 프롬스_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베를린 필 2017 발트비네 콘서트(지휘/구스타보 두 다멜)_슈만 '교향곡 제3번'
2015 테아틀로 카를로 펠리체 실황_조르다노 오페라 '페도라'
로얄콘서트헤보우_드뷔시 '목신의 오후' &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Rest in Peace – 평안하길

일 시 2월 23일(금)~3월 22일(목)
소울아트스페이스 1, 2전시장
문 의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화관본부 기획전
시민 참여전시 '나는 덕후다'展

일 시 3월 2일(금)~18일(일) 부산시민회관 2층 전시실
3월 19일(월)~25일(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9층 엘 아레나 광장
입장료 무료(공연 관람 시 자율 기부)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화관본부 630-5232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사진전
사진으로 보는 근대 풍경

일 시 2017년 1월 21일(화)~2018년 5월 27일(일)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전시실
문 의 부산시민공원역사관 850-6061

영화캐릭터전 '공룡탐험대'

일 시 2017년 11월 27일(월)~2018년 4월 1일(일)
영화의전당 두레아움광장 상상의 숲
입장료 무료
문 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부산박물관 소장
조선통신사 기록물

일 시 1월 9일(화)~5월 7일(월)
부산박물관 부산관 2층 미술실
문 의 부산박물관 610-7111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 중 부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공개하는 2018년 신수유물소개전.

3·1절 기념 나라꽃 무궁화그림
이강필 초대전

일 시 3월 1일(목)~3월 10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부산 참견錄 2018
브뤼노 레끼야르 단편들

일 시 3월 10일(토)~5월 3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고은사진미술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사진가 브뤼노 레끼야르의 작품으로 마련하는 연례 기획적 '부산 참견錄 2018'.

배성태 일러스트展
구름 꺼도 맑음

일 시 2월 7일(수)~3월 5일(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정성희 개인전 '향수'展

일 시 2월 13일(화)~3월 11일(일) 스페이스 나무
문 의 스페이스 나무 055-374-3500



Space Division – 공간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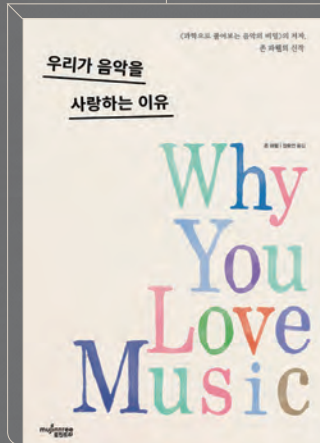
일 시 2월 23일(금)~3월 22일(목)
소울아트스페이스 3전시장
문 의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신모래 개인전
ROMANCE PART II

일 시 3월 8일(목)~4월 1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타워아트갤러리 특별기획
2018 '春-美' 展

일 시 3월 13일(화)~3월 20일(화)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우리가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

존 파헬 지음, 장호연 옮김 / 뮤진트리 / 396p / 1만 7천원

히치콕 감독의 영화 '헨지중'의 한 장면을 음악과 함께 보여주는 실험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영화에서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험참가자들에게 물었다. 음악 없이 본 사람들은 남자를 지적이고 분석적인 사설탐정이라고 생각했다. 걱정적인 음악(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을 들으면서 본 사람들은 예민하고 맹목적인 연인으로, 거친 전자음악(탄자린 드림의 앨범 수록곡)을 들으면서 본 사람들은 냉혹하고 외로운 청부살인자로 보았다. 이 결과는 음악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준다. 존 파헬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심리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를 해왔다. 그는 물리학자이자 음악가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음악의 감정 표현이나 해석을 과학적으로 풀어내고자, 수많은 사례들을 분석해 증거를 제시한다. 음악은 사람을 웃거나 울게 만든다. 주위 사람들과 유대감을 맺도록 돕기도 한다. 응원가를 함께 부를 때 알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성장배경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음악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미술관에 간 수학자

이광연 지음 / 어바웃북 / 368p / 1만 8천원

르네상스시대 미술이론가이자 수학자였던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1435년에 발표한 책 '회화론'에서 이렇게 썼다. "회화는 모든 분야에 조예가 깊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하학에 정통해야 한다. 나는 고대의 뛰어난 화가 팜필루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는 산술과 기하를 모르면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다고 했다." 이탈리아 화가 마사초가 그린 '성삼위일체'는 르네상스 회화 중에서 원근법을 가장 먼저 선보인 작품이다. 멀리 떨어질수록 작게 보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지만,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미술작품에 적용하는 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수학의 소산인 원근법은 르네상스시대를 거치며 회화의 기본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근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원근법이 미술의 진화를 가능하게 했다면, 황금비는 미술을 예술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모나리자'의 자태와 얼굴은 황금비에 가깝다. 점과 선, 면으로 사물의 본질을 그렸던 현대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은 황금직사각형의 비율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수학과 미술이 밀접한 관계임을 말해주는 책이다. 아름다운 그림 속에 담겨있는 수학을 만날 수 있다.



당나라 뒷골목을 읊다

마오야오원 지음, 김준연·하주연 옮김 / 글항아리 / 400p / 1만 9천 500원

당시(唐詩)를 통해 고대 중국의 풍속과 물정을 보여주는 책이 나왔다. 저자 마오야오원은 중국 고전 시가를 대중에게 소개해온 작가이다. 이 책에서는 당시 300수를 '입산양명' '결혼' '꽃' '꿈' '화장' '기녀' '웃' '음식' '싸움' 등의 주제로 묶어 당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되살려냈다. 당나라가 강성하던 시기에 그 사람들의 연화가 얼마나 호화로웠을까. 영화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당나라 여인들의 옷차림은 아름다웠을까, 당나라가 강성했을 때, 쇠락할 때 옷차림은 어떻게 변해갔을까, 그들의 놀이풍경은 어땠을까. 역사책을 통해 보았던 당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당나라 사람들이 '여느 고대 중국의 사람들'과는 달랐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당나라가 당시 세계에 견줄 만한 나라가 없을 만큼 강성한 대국이었다는 것과 관계있는 분석이다. 당나라의 기세 만큼, 당나라 사람들의 기세도 차츰차츰, 이는 그들의 생활에 새롭고 재미있는 풍경을 만들어냈다. 아백, 두보, 한유, 백거이의 시와 중국의 옛 그림 약 100폭은 그 시대로 이끌어준다. 당나라의 훌륭한 시인들과 함께 시대의 뒷골목을 걷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책이다.



(재)부산문화회관 2018년 SNS 서포터즈 출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재)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가 지난 2월 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재)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는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학생과 직장인, 주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서포터즈 간

적극적인 정보 교환과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부산문화회관의 공연소식,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생생히 알려나갈 예정이다. SNS 서포터즈는 이날 발대식 후 대극장에서 열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7회 정기연주회 '천재의 고뇌와 모방'을 함께 관람한 후 연주회 후기 게재와 함께 본격적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SNS 서포터즈 활동은 서포터즈의 개인 SNS 외에도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서포터즈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해 재단 출범과 함께 SNS 서포터즈를 처음 운영하면서 (재)부산문화회관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은 보다 많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채널), 블로그(네이버), 유튜브 등 6개 채널의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vivabscc>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vivabscc>

트위터 <https://twitter.com/vivabscc>

카카오톡(채널) <https://story.kakao.com/ch/bsccorkr>

블로그(네이버) <http://blog.naver.com/bsccorkr>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jI-1suSmm546J3PPRJ9B2w>



부산시립예술단 3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만나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이 3월에도 계속 펼쳐진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찾아가는 공연으로 시민과 만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시립예술단은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문화를 통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3월에는 지난달에 이어 부산시립무용단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내 각 복지관을 방문, 우리 춤의 아름다움과 멋을 전하는 '찾아가는 무용-2018 복지관 순회공연'을 가지며 부산시립교향악단이 3월 15일과 21일 송도요양병원과 학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일정

3월 2일(금) 11:00 대덕여자고등학교_무용단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3월 9일(금) 10:20 남구노인복지관_무용단 '찾아가는 무용-2018 복지관 순회공연'

3월 13일(화) 13:00 사상구노인복지관_무용단 '찾아가는 무용-2018 복지관 순회공연'

3월 15일(목) 10:00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_무용단 '찾아가는 무용-2018 복지관 순회공연'

3월 15일(목) 14:00 송도요양병원_교향악단

3월 21일(수) 17:00 학장종합사회복지관_교향악단

3월 22일(목) 11:00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_무용단 '찾아가는 무용-2018 복지관 순회공연'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2018년 하반기 정기대관 안내

... 대상

- 부산문화회관 : 극장(대/중/챔버홀/사랑채극장), 전시실
※ 사랑채극장은 연간 기획공연 진행에 따라 7월만 대관 가능
- 부산시민회관 : 극장(대/소), 전시실 1, 2

... 대관내용

- 대관 기간 : 2018년 7월 1일 ~ 12월 31일(6개월)
- 대관 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팝업 참조
- 접수기간 : 2018년 3월 1일(목) 오전 9:00 ~ 3월 14일(수) 오후 6: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전화 및 구두신청은 받지 않음)
 - ▷ 부산문화회관 : 극장 hssi12@bscc.or.kr / 전시실 gjh1834@bscc.or.kr
 - ▷ 부산시민회관 : 극장 kjy17@bscc.or.kr / 전시실 mayday@bscc.or.kr
- ※ 공연장별로 접수 받으며,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 결과통보 : 3월 말(예정)
 - ※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 결과 통보

... 대관심의 우선기준

-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의 공연 및 행사는 대관 제외

...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 ▷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심의회 결과 통보

... 대관신청 시 구비서류

- ▷ 사용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공연상세내용, 공연참고자료) 1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 ▷ 사업자등록증(교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 공연계획서가 없는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으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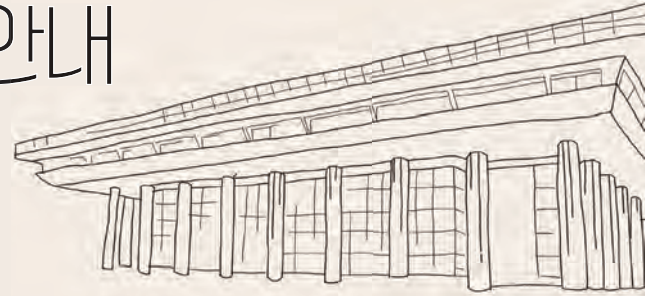
- ▷ 계약금(대관료의 30%) :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 잔금 : 대관 예정일 30일(대극장의 경우, 공연일 60일) 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70% 납부
 -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관 승인이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부가세 별도 부과
 - ※ 부산시민회관은 변경된 대관 사용료에 따라 사용료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 부산문화회관(대관담당) : 극장 051-607-6058, 전시실 051-607-6063
- ▷ 부산시민회관(대관담당) : 극장 051-630-5234, 전시실 051-630-5232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5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문화회관 주차장 할인(회원카드 제시 시 50%)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등



V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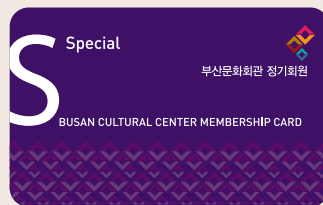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지정된 기획공연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SPECIAL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MEMBER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 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및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입장료 할인이 달라질 수 있음.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8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럽 신인 오페라 길라 콘서트 [종료]

2월 24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소프라노 김리라, 임수연, 정한나, 테너 이명현, 이준범, 정필립, 바리톤 이규봉, 조병익, 베이스 김신호 등 자금 현재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인 성악가들의 무대.

유럽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종료]

2월 25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피아니스트 변애영을 비롯해 김가람,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사, 피호영,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 최주연, 플루티스트 필립 베르놀드, 이소영, 이주희 등 유럽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마련하는 실내악의 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시리즈 '거장, 거장을 만나다' [예약중]

3월 14일(수)~15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곡 전곡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 연주 : 주희성, 파스칼 드브이옹, 노경원, 김영호, 이미주

2018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4월 13일(금), 7월 13일(금), 11월 23일(금)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실력파 해외 실내악단들이 전하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실내악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무대.

피아니스트 이반 크반 리사이틀

5월 18일(금)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2017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이반 크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오페라 in 콘서트 '돈 조반니'

6월 16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오페라 전곡을 대형 세트를 배제하고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Opera in Concert'.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회

6월 29일(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인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초청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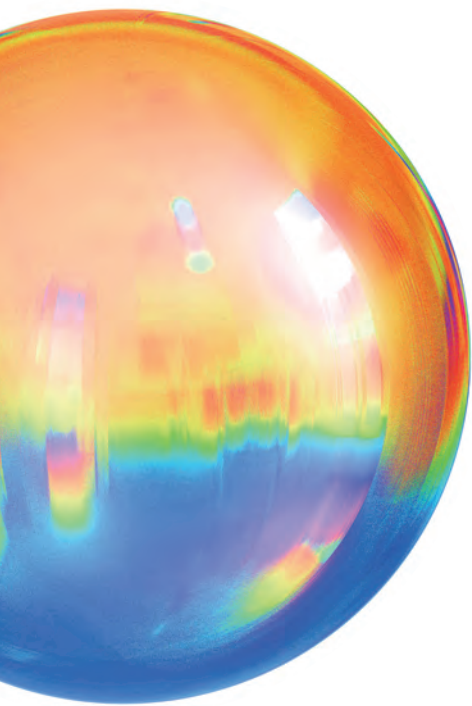
카푸송&카메라타 잘츠부르크

10월 20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함께 하는 무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4~5)



VIP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김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 J 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전)동래로터리 회장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해빈 세종기획 이사
성승모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신명희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상현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이경칠
이명아 부산아트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와 원장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충영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진경옥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 2018년 2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예술감독 곽종필
연출 정경환
재창작 정경환

2018 MACBETH

William Shakespeare

2018년 3.19.(월) ~ 24.(토)

평일 7시 30분 / 주말 5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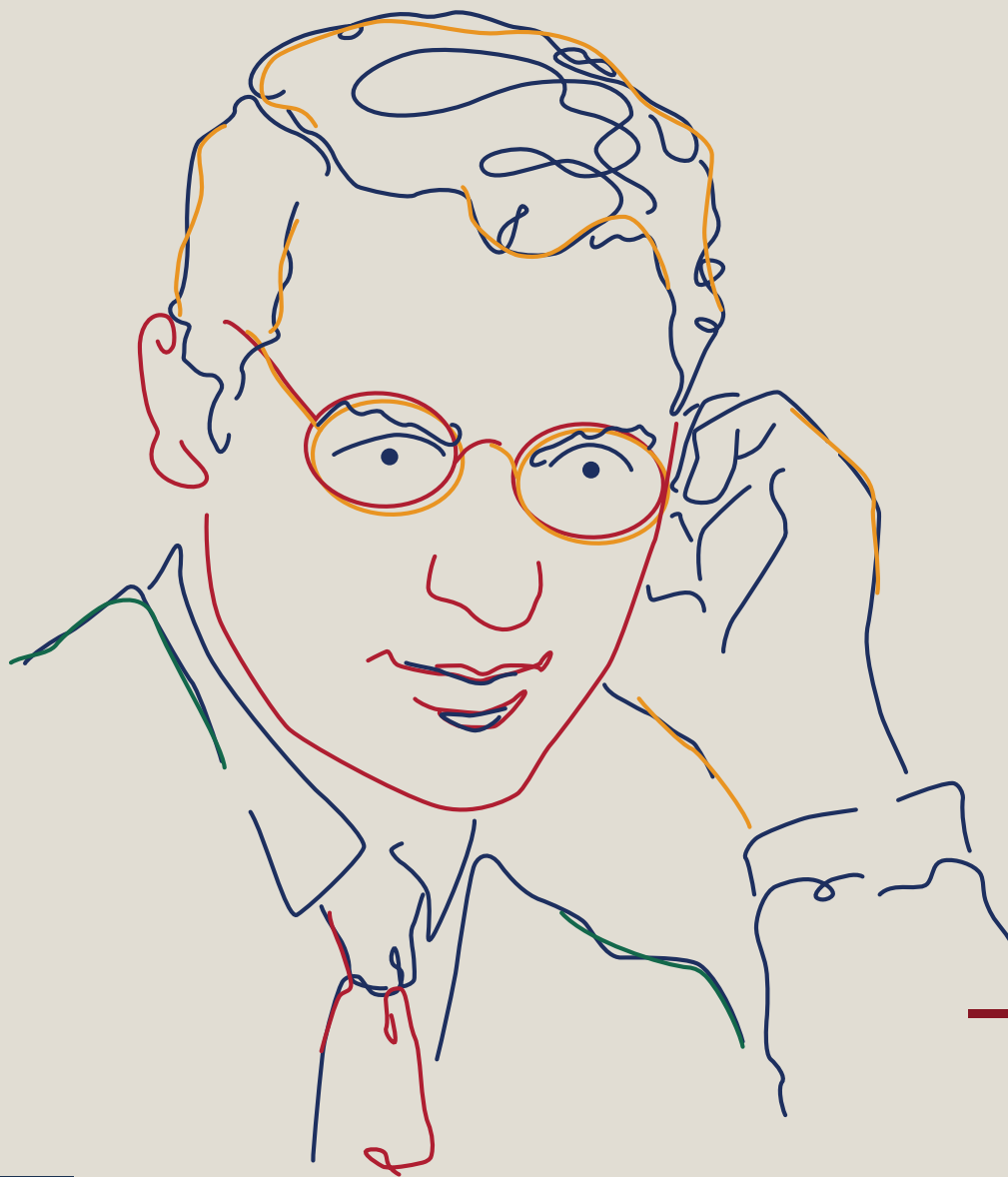
주관  부산시립극단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25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입장권 전석 10,000원

출연 이혁우 김은희 황창기 엄지선 이현주 정마린 배기철 오희경 서보기 김은옥 이휴성 정채은 이예진 최종문
스텝 예술감독 곽종필 재창작/객원연출 정경환 작곡 박철홍 안무 김은주 무대디자인 황경호 조명디자인 조세현
의상디자인 곽세영 분장디자인 이지원 무대감독 정순지 기획 조승환 홍보 박지현



ARTIST

김영순
김형건
도해진
이정민
이정선
허동혁
B.D Gilley
Grace LaFace
Karoline Anderson
Matthew Eckersley
Michael Melson
Michael Woods
Niall Ruddy

PERFORMANCE

03.02

Barbie Dolls
Lady Good Man

03.09

L.A Bridge
소년민

03.16

김일두
손무성

나는 덕후다展.

2018.03.02 - 18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2층

2018.03.19 - 25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9층 엘 아레나 광장



지 휘 이정필



생 황 김효영

풍

봄

류

을

노

래

하

다

2018

신춘음악회

03.22.

19:30

목요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정 가 하윤주



정 가 이동영



장 구 이현철



장 구 민영치

1 부산초연

국악관현악 [대취타 易]

작곡 원 일

2 부산초연

정가를 위한 국악관현악 [별한]

작곡 이정호 | 정가 이동영, 하윤주

3 부산초연

국악관현악 [아리랑 랩소디]

작곡 이지수

4

생황협주곡 [바람의 섬]

작곡 이준호 | 생황 김효영

5 부산초연

아름다운 인생 II

작곡 김선제

6 부산초연

국악관현악을 위한

설장구 협주곡 [신기]

작곡 민영치 | 편곡 이동규

설장구 민영치, 이현철

주 최



입장료 균일 10,000원

주 관 부산시립예술단

문 의 051.607.3124

2017 / 18 NEW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BEETHOVEN SYMPHONY CYCLE

CONCERT VI

베토벤 교향곡 제5번 Beethoven **Symphony No.5**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Grieg **Piano Concerto**

지휘 금난새 Gum Nanse
피아노 피터 오브차로프 Peter Ovtcharov
연주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8. 3. 24. Sat. 17:00

티켓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예매 및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孤酒忘態」

고 주 망 태

忘孤酒態

예술감독 오충근
Choong-Keun Oh

연 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usan Symphony Orchestra

특별출연 최진석
Jin-Seok Choi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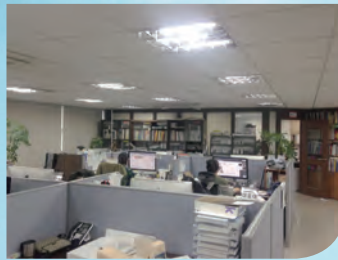
3.31(토) 5:00pm 고[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7.7(토) 5:00pm 주[酒]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0.6(토) 5:00pm 망[忘]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2.8(토) 5:00pm 태[態]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핵심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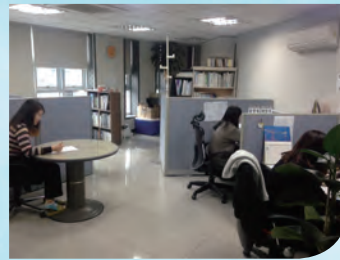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부산은행 유망중소기업
-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과 시스템
- 최상의 효과와 최고의 결과물을 제작



IBM실



MAC 디자인실



기업부설연구소/전략기획실



직원 휴게실/카페



1공장(6색 · 4색 인쇄실)



2공장(제본실)



회의실



제안사 사옥 전경



Busan Leading Company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기획실, 디자인실
회의실, 스튜디오

2F

인쇄시설
제본시설

1F



최고의 크리에이티브와 전략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효민디앤피**

소식지

PPT 디자인

일러스트

출판

디자인 컨설팅

카드로그

Homepage www.hyomindnp.co.kr

T 051-807-5100 F 051-807-0846



조운범과 함께 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3

오페라 이야기 I



해설 조운범

2018. 3. 28 (수)

am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이종진



소프라노 양제경



테너 전병호



소프라노 조운정



바리톤 김은곤

Program 프로그램

W. A. Mozart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Opera <Le nozze di Figaro>

서곡
Overture
나비야 다시는 날지 못하리
Non più andrai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Voi che sapete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Che soave zeffireto

G. Rossini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Opera <Il Barbiere di Siviglia>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
Largo al factotum della città
방금 들린 그대의 음성
Una voce poco fa
당신께 평화와 기쁨을
Pace e gioia sia con voi
더 이상 견딜수 없어
Cessa di più resistere

주 최.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사

문의 051) 607-6000 / 6075(정기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입장료

전석 10,000원

| 할인안내 | 50% 장애인 (1~3급 동반1인, 4~6급 본인) / 국가유공자 본인 / 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 학생단체 20명 이상 30% 상반기 공연 3회 동시구매 (패키지)

20% 단체 10명 이상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유료회원-홈페이지 이용 가능)

10% 다자녀 가족 (자녀 3명 이상 동생가족) / 초·중·고·대학생 / 임산부 (동반1인) /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본인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스마트 폰

잘 보이시나요?

내가 벌써 노안인가?

누구나 느끼면서도 당혹해 하는 노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CUSTOM-Q
노안교정술

스마일
노안교정술

노안과 백내장을 한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 누네빛안과

롯데호텔 14F | 051.810.5678 | www.nunevit.com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극장" 두 번째 작품

다같이 방망이 들고 뚝딱하니와 함께
호랑이 잡으러 개비뚝딱~!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와 호랑이

제 4회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아동청소년부문 아시테지상 수상작

2018.03.16.(금) ~ 05.31.(목)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주)위플레이프로덕션

|티켓|

2만원

|문의 및 예매| 부산문화회관 051) 607-6053 www.bscc.or.kr